

삼성 KPMG

ISSUE MONITOR

2020년 상반기 벤처·스타트업
투자를 통해 본 유망 산업 및 기업 분석

October 2020 | 제131호

삼성KPMG 경제연구원

kpmg.com/kr



2020년 상반기 벤처·스타트업 투자를 통해 본 유망 산업 및 기업 분석

Issue Monitor | October 2020

Contacts

삼성KPMG 경제연구원

이효정
이사

Tel: +82 2 2112 6744
hyojungle@kr.kpmg.com

전창의
수석연구원

Tel: +82 2 2112 0934
changuichun@kr.kpmg.com

김기범
선임연구원

Tel: +82 2 2112 7430
kkim28@kr.kpmg.com

본 보고서는 삼성KPMG 경제연구원과 KPMG Member firm 전문가들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보고서에 포함된 자료의 완전성,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밟은 것은 아닙니다. 본 보고서는 특정 기업이나 개인의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을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 법인의 전문가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KPMG의 사전 동의 없이 본 보고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무단 배포, 인용, 발간, 복제할 수 없습니다.

Contents

2020년 상반기 코로나19로 벤처·스타트업 업계는 적지 않은 변화를 겪었다. 예기치 않은 코로나19 발발로 경기 침체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투자 심사 또한 더욱 보수적인 경향을 보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시기에는 목표 시장의 명확성과 수익 창출 가능성에 초점을 둔 비즈니스 모델이 한층 더 중요해질 것이다. 본 보고서는 2020년 상반기 해외 및 국내 벤처·스타트업 투자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기업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성장모형을 찾고 신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Page
Infographics Summary	3
코로나19와 벤처·스타트업	4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시기	4
2020년 상반기 글로벌 벤처·스타트업 투자 동향	6
글로벌 VC 투자는 비교적 견조한 흐름세 유지	6
벤처·스타트업의 엑시트(Exit): 위축된 글로벌 IPO, M&A 시장	7
2020년 상반기 글로벌 벤처·스타트업 투자 트렌드	9
개요 및 조사 방법론	9
1. 컨슈머 서비스	12
2. 유통·커머스	14
3. 헬스케어·바이오	16
4. 모빌리티	18
5. 금융·핀테크	20
6. 소프트웨어·솔루션	22
7. ICT 제조업	23
8. 부동산·임대	24
9. 게임·미디어·콘텐츠	26
10. 기타	28
2020년 상반기 국내 벤처·스타트업 투자 동향과 트렌드	29
국내 벤처·스타트업 투자 현황	29
2020년 상반기 국내 벤처·스타트업 투자 현황	30
2020년 상반기 국내 벤처·스타트업 주요 투자 사례	33
각 분야별 2020년 상반기 국내 벤처·스타트업 투자 트렌드	37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유망 투자 분야와 투자 전략	41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유망 투자 분야는?	41
포스트 코로나 시대, 효과적인 투자 전략은?	43

'20년 상반기 글로벌 벤처·스타트업 투자 동향

VC 투자 소폭 감소

초기 단계(엔젤, 시드)보다 후기 단계 투자 선호 현상 심화



VC 엑시트 주춤

코로나19의 여파로 M&A, IPO 시장 위축

\$3억 이상 VC 투자 유치 건수

52개

(\$10억 이상 5개 / \$7억 이상 8개)

10개

모빌리티 (서비스·기술)

8개

헬스케어·바이오

8개

금융·핀테크

코로나19로 부상하는 분야



신선식품·음식 배달



숏폼 동영상 스트리밍



클라우드 기반 SaaS



프롭테크 (PropTe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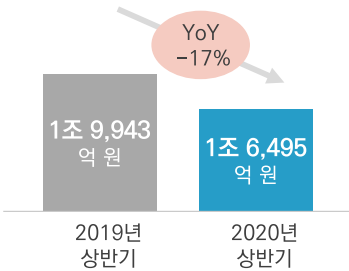
핀테크 (FinTe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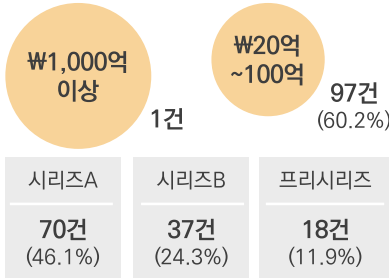
에듀테크 (EduTech)

'20년 상반기 국내 벤처·스타트업 투자 동향

전년 대비 투자 금액 17% 감소



대형 투자 ↓ 중소형 투자 ↑



Top 5 투자 분야

- 01 유통·커머스
- 02 헬스케어·바이오
- 03 소프트웨어·솔루션
- 04 모빌리티
- 05 게임·미디어·콘텐츠

대형 투자 사례

컬리	신선식품 이커머스	₩2,000억
베스핀글로벌	클라우드 솔루션	₩900억
번개장터	모바일 중고장터	₩560억
에스엠랩	2차전지 양극재	₩520억

Emerging Technology

	AI, Cognitive Computing
	D&A (Data&Analytics)
	VR·AR
	Collaborative Technology

코로나19로 부상하는 분야

	이커머스		의료시		클라우드 서비스
	데이터 산업		교육 서비스		원격근무 솔루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투자 전략

1 코로나19로 인한 이커머스, 에듀테크, 게임·미디어 등 비대면 서비스에 주목



2 투자를 포스트 코로나 신성장동력 확보 기회로 활용



3 다양한 업종에서 AI, D&A 기반 스타트업 부상에 주목



4 전 세계적 추세와 국내 정책 흐름을 쫓는 전략



코로나19와 벤처·스타트업

“
코로나19와 같은 격변의
시기에 엔젤·시드 단계의
신생 기업들은 자금 조달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시기

2020년 상반기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세계 경제와 기업 경영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방역에 총력을 다하고 있고, 기업 또한 공급사슬의 붕괴, 소비 부진 등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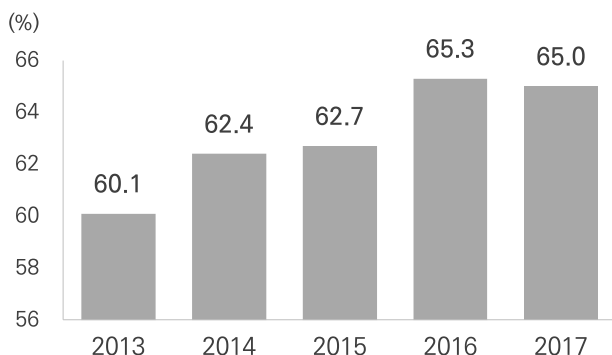
코로나19가 대기업이나 중견 기업에 미친 영향이 기침 수준이라면, 벤처·스타트업에게는 독감과도 같은 충격을 주고 있다. 업력이 짧고 외부 자금 의존도가 높을수록, 자생력이 낮고 예측 불가능한 외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벤처·스타트업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크게 위험 요인과 기회 요인으로 나뉘 볼 수 있다. 코로나19 시기에 벤처·스타트업의 성장과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는, VC(Venture Capital) 투자사가 주도하는 모험자본이 안전자본으로 이동하면서 기업이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이 손꼽힌다. 특히 엔젤(Angel)이나 시드(Seed) 단계의 신생 기업들은 코로나19와 같은 격변의 시기에 더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벤처·스타트업 업계는 진입과 퇴출이 활발한 동태적인 특성을 지닌다. 2019년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기준 기업생멸행정통계’에 따르면, 2017년 신생 기업은 91만 개, 소멸 기업은 69만 개로 조사됐다. 2017년 활동 기업 중 2016년 신생 기업의 1년 생존율은 65.0%였으며, 2012년 신생 기업의 5년 생존율은 29.2%에 불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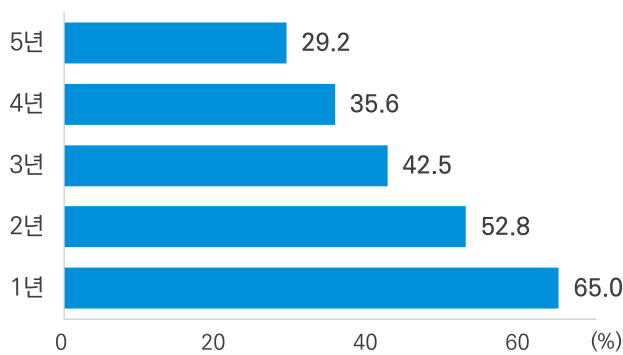
코로나19와 같은 예상치 못한 충격이 발생할 경우, 한계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되고, 오직 경쟁력 있는 기업만 생존할 수 있는 적자생존(適者生存) 환경이 한 층 더 강화된다. 정부 보조금에 의존해 연명하는 일명 좀비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되고, 경쟁력 있고 생산성 높은 기업만 생존하게 되어 산업 구조적인 측면에서 볼 때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만약 잠재력이 있는 신생 기업이 이 기간 동안 생존해 있지 못한다면, 기업이 회생할 수 있는 기회마저 잃게 될 것이다.

[국내 신생 기업의 연도별 1년 생존율 추이]



Source: 통계청 기업생멸행정통계,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국내 신생 기업의 2017년 1~5년 생존율]



Source: 통계청 기업생멸행정통계,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
 코로나19라는 악재
 속에서도 VC 투자를 유치한
 벤처·스타트업을 살펴보고,
 VC 투자 트렌드를 파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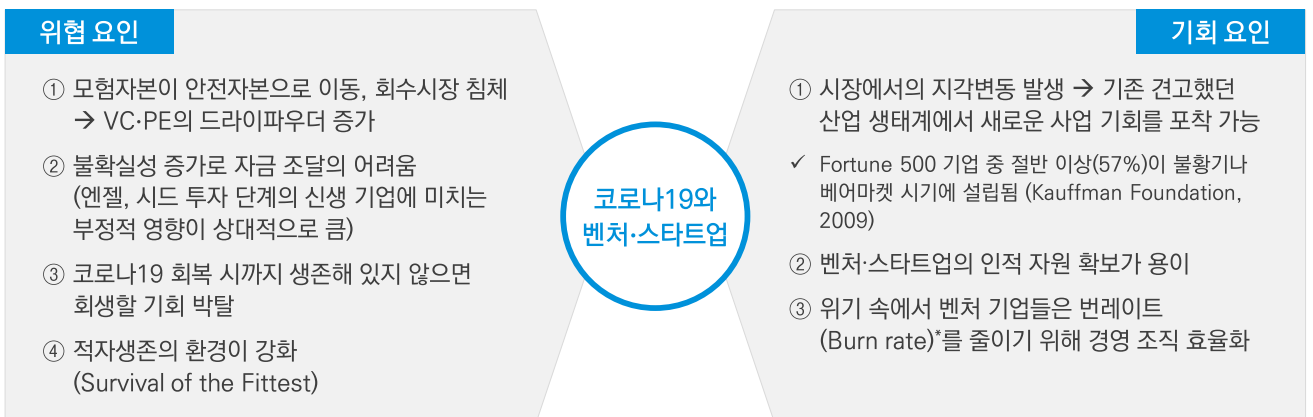
그러나 위험 요소만 있는 것은 아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시장에서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생태계 전반에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에 벤처·스타트업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생겨날 수 있다. 한 예로, 미국 카우프만 재단(Kauffman Foundation)은 ‘The Economic Future Just Happened (2009)’ 보고서에서 포춘(Fortune) 500개 사의 설립 연도를 조사한 바 있는데, 그 중 절반 이상이 불황기나 베어마켓(Bear market)¹⁾ 시기에 설립되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서비스 이용이 늘면서 국내의 쿠팡이나 쉐리와 같은 기업이 이전보다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것 또한 이와 비슷한 사례로 보인다.

또 다른 기회 요인으로는, 많은 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해 구조조정을 거치게 되면서,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벤처·스타트업이 이러한 인적 자원을 조금 더 쉽게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워진 시기에 벤처·스타트업이 재무구조와 경영 조직을 효율화하며 더 탄탄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점 또한 기회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코로나19 시기에는 벤처·스타트업에게 위협과 기회 요인이 공존한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코로나19라는 악재 속에서도 성공적으로 VC 투자를 유치한 기업을 살펴보고, 2020년 상반기 국내외 VC 투자의 트렌드를 파악해보고자 했다. 본 보고서는 아래와 같이 구성되었다. 우선 2020년 상반기(1월~6월) 글로벌 VC 투자를 살펴보고, 이후 10대 분야별로 2020년 상반기 투자를 많이 받은 기업들을 살펴봤다. 이후, 국내 벤처·스타트업 업계의 투자 추이와 더불어 2020년 상반기 주요 투자 기업들을 다루었다.

VC 투자에서는 기업의 수 년 후 잠재성을 평가하기 때문에, VC투자 동향이 향후 5년 내에 어떤 기업과 기술이 부상할 것인지를 선제적으로 파악하는 데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다. 이 보고서가 기업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성장 기회를 발굴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코로나19로 인한 벤처·스타트업의 위협 및 기회 요인]



Source: 삼성KPMG 경제연구원

Note: 번레이트(Burn rate)는 벤처·스타트업의 초기 투자비용에서 매월 지출되는 운영비로 자금이 떨어지는 속도를 의미

1) 베어 마켓(Bear market): 주가를 비롯한 자산 가격이 하락하는 악세장을 뜻함

2020년 상반기 글로벌 벤처·스타트업 투자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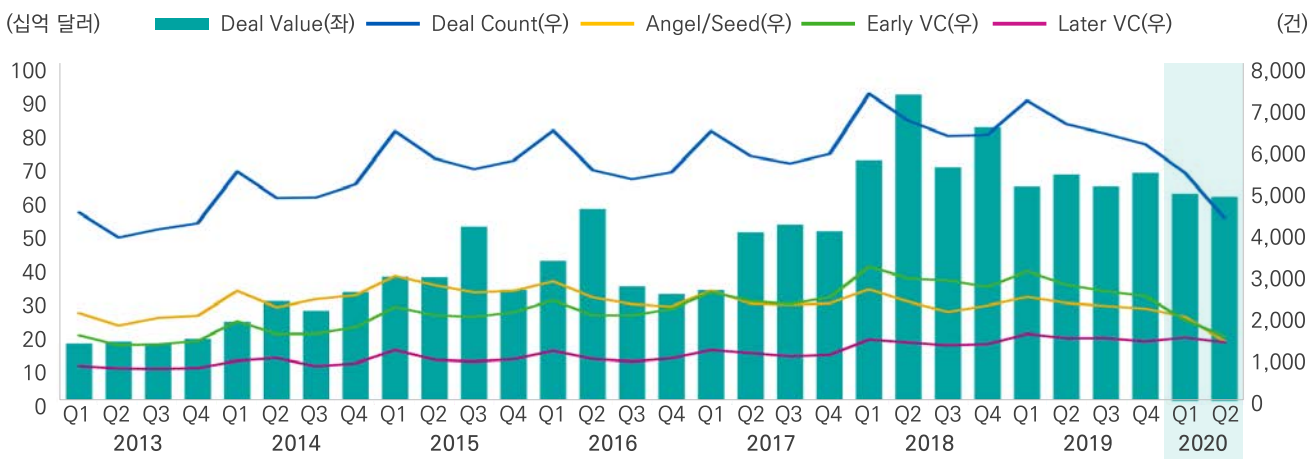
“ 2020년 상반기 동안에는 VC 투자자들은 기존 투자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며, 기투자 기업 지원에 집중 ”

글로벌 VC 투자는 비교적 건조한 흐름세 유지

KPMG가 전 세계 VC 투자 현황을 조사한 보고서 ‘Venture Pulse 2020 2Q’에 따르면, 2020년 2분기 글로벌 VC 투자는 629억 달러로 나타났다. 2019년과 비교 시 소폭 감소한 수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고려했을 때, 비교적 건실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투자 건수는 2020년 2분기 4,502건으로 코로나 이전에 비해 약 1/3 가량이 감소했으며, 특히 엔젤과 시드 단계의 투자, 초기 투자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상당수의 VC 투자자들이 신규 펀드를 조성하거나, 신규 투자를 위한 딜 소싱을 하기보다는, 2020년 상반기 동안에는 기존 투자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며, 기투자 기업 지원에 더 집중했던 모습이다.

VC 투자가 가장 활발한 미국에서 최초 펀드레이징(First-time Fundraising)이 2020년 상반기 급감한 점 또한 확인할 수 있다. VC 투자의 경우 투자 심사역과 최고경영진 간 대면 접촉이 중요한데, 록다운(Lock-down) 상태에서 이러한 기회가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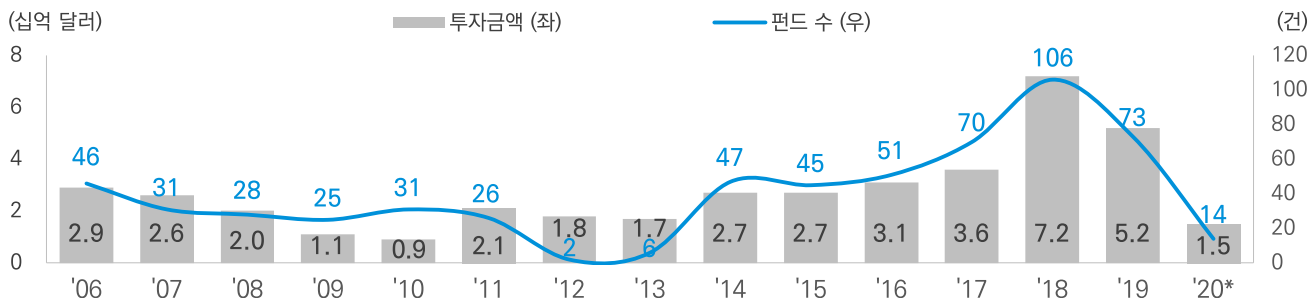
[글로벌 VC 투자 추이]



Source: Pitchbook, KPMG Venture Pulse ('20.2Q),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Note: Pitchbook에서 2020년 7월 22일 추출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함

[미국 내 최초 펀드레이징(First-time Fundraising) 추이]



Source: Pitchbook-NVCA Venture Monitor ('20.2Q),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Note: '20년은 6월 30일까지의 통계



기업들은 IPO를 통한 상장을 이루는 대신 자금을 VC나 PE 투자를 통해 확보해 나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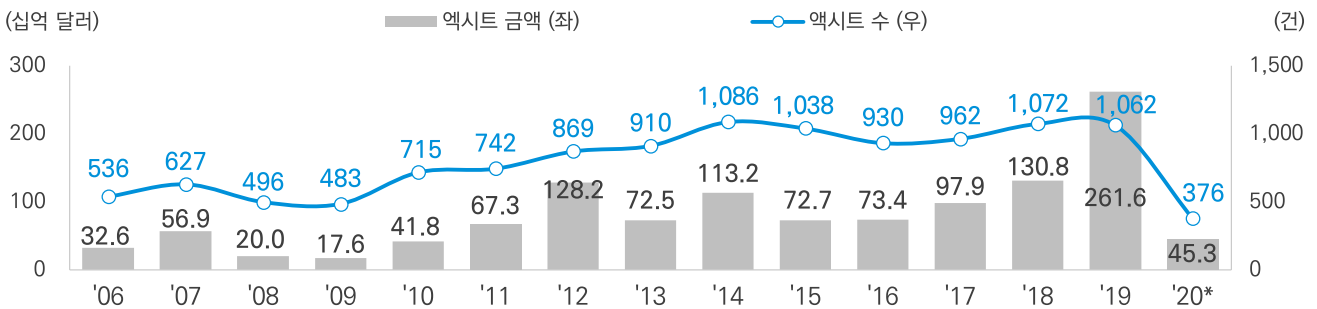


벤처·스타트업의 엑시트(Exit): 위축된 글로벌 IPO, M&A 시장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면, IPO(기업공개)를 통해 투자금을 유치했을 벤처·스타트업들은 IPO를 미루거나 보류하고 있다. 예비 상장기업들은 IPO를 통한 상장을 이루는 대신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VC나 PE(사모펀드) 추가 투자 라운드를 통해 확보해 나가고 있다. 2020년 상반기 코로나19로 인해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기업설명회나 기자간담회와 같이 기업의 가치를 책정할 수 있는 수단들이 제한되면서 기업들이 IPO를 미룬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글로벌 금융정보 제공업체인 피치북(PitchBook)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미국 내 VC 엑시트 규모는 453억 달러로 급감했다. 미국은 IPO 시장이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와 2020년 11월에 예정된 미국 대선과 같은 불확실성 증가로 기업들은 IPO를 연기하거나 보류하는 추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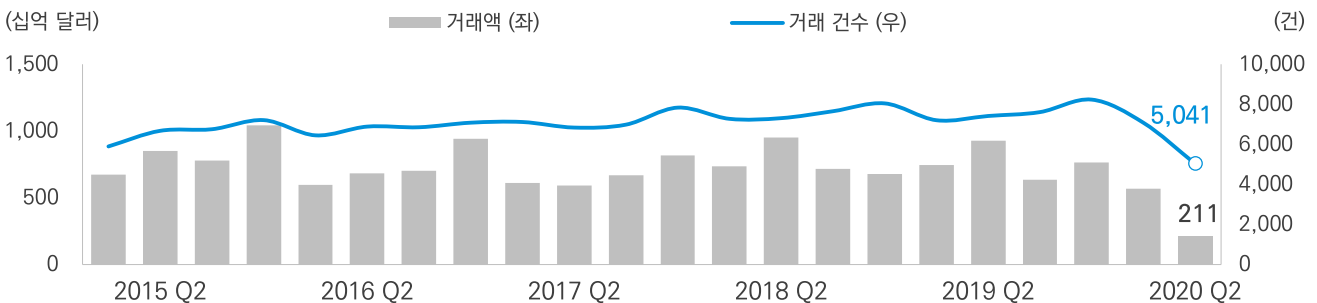
2020년 상반기 글로벌 M&A(인수·합병) 시장을 봐도 벤처·스타트업에게 녹록했던 환경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2020년 2분기 글로벌 M&A 거래액은 2,116억 달러, 거래건수는 5,041건에 그쳤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M&A 거래가 가장 낮았던 2009년 3분기(2,711억 달러)보다도 더 낮은 수치다. 국경 간 봉쇄조치로 기업실사(Due Diligence)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크로스보더(Cross-border) 거래는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고, 매수 측과 매각 측의 밸류에이션(Valuation) 격차가 코로나발 경제 침체와 맞물려 커지면서, 다수의 M&A 거래가 무산되거나 연기된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 내 VC 엑시트 추이]



Source: Pitchbook-NVCA Venture Monitor ('20.2Q),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Note: '20년은 6월 30일까지의 통계

[글로벌 M&A 거래 건수 및 거래액 추이]



Source: Bloomberg, 삼정KPMG 경제연구원



코로나19가 진정될 경우, '20년 하반기 M&A 시장은 상반기보다는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진정된다는 가정하에서, 2020년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는 M&A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고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대규모의 자금이 풀려 있는 까닭이다. 또한 코로나19의 여파로 현금이 부족한 '알짜' 기업들이 M&A 공급 매물로 많이 나오고, 자금 상황이 비교적 양호한 기업의 M&A 수요가 맞물려 M&A 시장이 활기를 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2020년 6월 이후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구글과 같은 다수의 글로벌 테크 기업들은 기술 스타트업을 인수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벤처·스타트업에게 엑시트할 수 있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20년 6월 이후 글로벌 테크 기업의 주요 M&A 동향]

발표일	기업	인수대상	주요 기술
'20.06.18	페이스북	매필러리 (Mapillary)	구글 스트리트뷰와 유사한 현장 사진 정보를 제공하는 지도 서비스
'20.06.24	애플	플릿스미스 (Fleetsmith)	애플 기기를 원격으로 간편하게 설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
'20.06.26	아마존	죽스 (Zoox)	자율주행 기술 개발
'20.06.29	구글	노스 (North)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스마트 글래스 개발
'20.07.06	우버	포스트메이츠 (Postmates)	미국 음식 배달 플랫폼
'20.07.08	MS	오리온즈 시스템즈 (Orions Systems)	AI 기술을 활용해 영상과 이미지에서 데이터를 식별하고 시각화 및 분석
'20.08.01	애플	모비웨이브 (Mobeewave)	NFC 칩으로 결제하는 기술
'20.08.25	애플	스페이스스 (Spaces)	화상회의 플랫폼을 위한 VR 애니메이션 아바타 제작
'20.09.02	시스코	배블랩스 (BabbleLabs)	AI 기술을 활용해 음성과 원치 않는 소음을 구별해 제거하는 기술
'20.09.20	오라클·월마트	틱톡 (TikTok) 미국 법인 (협상 중)	숏폼(Short-Form) 동영상 플랫폼

Source: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2020년 상반기 글로벌 벤처·스타트업 투자 트렌드

개요 및 조사 방법론

2020년 상반기 VC 투자를 받은 벤처·스타트업 분석을 통해 업종별 투자 흐름을 파악해볼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2020년 상반기 동안 VC 투자를 많이 유치한 기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블룸버그(Bloomberg)와 피치북에서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3억 달러 이상의 VC 투자를 받은 기업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²⁾ 본 보고서의 취지는 유망 벤처·스타트업 발굴에 있기에, 해당 기업 중 업력이 20년 이상 되거나 분석 기간 동안 이미 상장한 기업들을 제외했다. 가령, 해당 데이터에는 1985년 설립된 영국의 경주용 자동차 기업인 맥라렌(McLaren)과 1991년 설립된 미국의 에픽게임즈(Epic Games)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기업들은 본 보고서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아 제거했다. 또한, 2017년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독일의 소형·전기차용 배터리 제조 기업 바르타(Varta)와 같은 기업도 제외했다. 마지막으로 딜에 대한 정보 검색이 어려운 기업을 제외한 후, 총 52개의 벤처·스타트업을 선별했다.

“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3억 달러
이상의 VC 투자를 받은
기업을 분석 대상으로 삼음 ”

이 중 상당수는 제품과 서비스 상용화에 성공해 유니콘으로 성장한 기업으로 2020년 상반기 동안에 추가 투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는 VC와 PE 투자를 동시에 받았으며, IPO를 준비하는 기업과 분석 기간 이후인 2020년 7월에 나스닥에 상장한 중국의 전기 자동차 기업 리오토(Li Auto)와 같은 사례도 있었다.

10개 분야로 나눠 52개 기업을 살펴봤을 때, 모빌리티 분야의 기업이 10개로 가장 많았고, 이후 헬스케어·바이오(8), 금융(8개)이 뒤를 이었다. 2020년 상반기 투자 유치 규모가 가장 컸던 기업으로는 구글(알파벳)의 자율주행 기술 개발사인 웨이모(Waymo), 인도네시아의 승차공유 기업 고젝(Gojek)이 있었다. 스페이스X, 줄(JUUL), 디디추싱(DiDi Chuxing)과 같이 대중에게 많이 알려진 기업도 있지만, 익숙하지 않은 기업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조사 방법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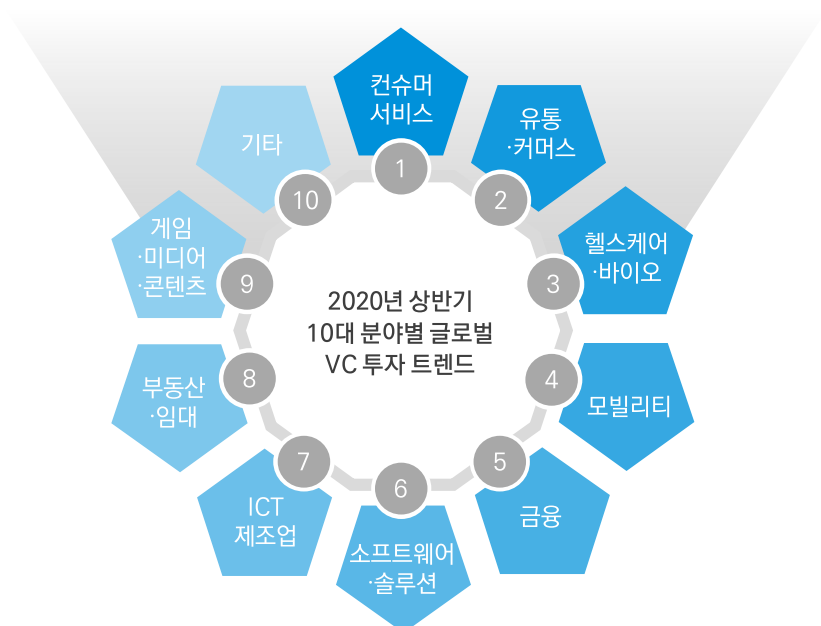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2) VC 투자 규모는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어, 블룸버그와 피치북에서 데이터를 추출한 시점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본 보고서에서 블룸버그는 '20년 7월 6일, 피치북은 '20년 7월 31일에 추출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

[10대 분야별 글로벌 VC 투자 트렌드]

1	컨슈머 서비스	중국·신흥국에 몰리는 에듀테크(EduTech) 투자
2	유통·커머스	코로나19로 탄력 받은 음식·신선식품 배달 플랫폼
3	헬스케어·바이오	유전자 치료 및 마이크로바이옴 기업에 투자 집중
4	모빌리티	승차공유 서비스와 모빌리티 기술 기업에 투자 양분
5	금융	8개 중 7개 기업은 핀테크(FinTech) 유니콘
6	소프트웨어·솔루션	클라우드 기반의 SaaS(Software-as-a-Service) 기업
7	ICT 제조업	플렉서블 디스플레이(ex. Royole), AR·VR(ex. Magic Leap)
8	부동산·임대	중국·미국 중심의 프롭테크(PropTech) 투자
9	게임·미디어·콘텐츠	OTT 시장의 틈새를 파고든 숏폼(Short-form) 동영상
10	기타	우주사업(ex. SpaceX), 암호화폐 거래소(ex. Bakkt)

“ 2020년 상반기 VC 투자를 받은 52개 기업 분석을 통해 글로벌 VC 투자의 방향성을 도출 ”



Source: 삼성KPMG 경제연구원

[2020년 상반기 3억 달러 이상 투자 받은 기업]

영역	기업	투자액 (백만 달러)
① 컨슈머 서비스	Yuanfudao	1,000
	Zuoyebang	750
	JUUL	700
	Impossible Foods	500
	Byju's	400
② 유통·커머스	Deliveroo	575
	Tokopedia	500
	Doordash	400
	Instacart*	325
	Xingsheng Youxuan	300
	DingDong Maicai	300
③ 헬스케어 ·바이오	MGI Tech	1,000
	Sana Biotechnology	700
	Indigo Agriculture	500
	Lyell	493
	Grail	390
	Manus Bio	340
	CureVac	333
Everest Medicines	310	
④ 모빌리티	Waymo	3,000
	Gojek	2,000
	DiDi Bike	1,000
	Grab	886
	Joby Aviation	590
	Li Auto	550
	DiDi Woya	500
	Pony.ai	462
	Via Transportation	400
	Didi Chuxing	300

영역	기업	투자액 (백만 달러)
⑤ 금융	Stripe	850
	Chime	700
	N26	570
	Revolut	500
	Robinhood	430
	Navi Technologies	397
	AvidXchange	388
	Nubank	300
⑥ 소프트웨어 ·솔루션	Snowflake	479
	Limio	422
	Samsara	400
	Toast	400
	Netskope	340
	Mobilitie	325
	MiningLamp	300
⑦ ICT 제조업	Magic Leap	350
	Royole	300
⑧ 부동산·임대	OYO	807
	Ziroom	500
⑨ 게임·미디어·콘텐츠	Quibi	750
⑩ 기타	SpaceX	346
	ANE Logistics	300
	Bakkt	300

■ 10억 달러 이상
■ 7억 달러 이상
■ 5억 달러 이상
■ 3억 달러 이상

Source: Pitchbook, Bloomberg, 삼성KPMG 경제연구원

Note1: 투자액은 '20년 상반기('20.01.01~'20.06.30) 기간 동안 투자를 받은 금액

Note2: 인스타카트(Instacart)는 '20년 6월 2.25억 달러 투자와 '20년 7월 4일 1억 달러의 추가 투자를 받은 달을 포함

Note3: VC 투자 규모는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어, 블룸버그와 피치북에서 데이터를 추출한 시점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본 보고서에서 블룸버그는 '20년 7월 6일, 피치북은 '20년 7월 31일에 추출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

1. 컨슈머 서비스

컨슈머 서비스 분야에서는 교육(Education)과 기술(Technology)이 접목된 에듀테크(EduTech) 분야의 기업에 대한 투자가 두드러졌다. 2020년 6월 기준 10억 달러 이상의 기업 가치를 평가받고 있는 에듀테크 분야의 유니콘 중 7개 기업이 2020년 상반기에도 투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의 바이주스(Byju's), 중국의 위안푸다오(Yuanfudao), 줘예방(Zuoyebang)은 본 보고서에서 살펴본 3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받은 기업들로 확인된다.

“
코로나19로, 원격 수업이
보편화되고, 비대면 수업이
증가하면서 교육 업계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

코로나19로 원격 수업이 보편화되고, 비대면 수업이 증가하면서 최근 교육 업계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고 있다. 교육시장조사업체 홀론아이큐(Holon IQ)에 따르면, 글로벌 에듀테크 시장은 2018년 1,520억 달러 규모에서 2025년 3,42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 분야의 영국 컨설팅 업체인 캐어니글 어소시에이트(Cairneagle Associates) 또한 코로나19 이후의 에듀테크 시장 전망을 수정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2019년 기준 1,630억 달러의 에듀테크 시장이 2025년 3,27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코로나 이후 수정된 시나리오에서는 보수적으로 봤을 때도 2025년 3,680억 달러, 최상의 시나리오에서는 4,06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코로나19가 최초 확산된 중국에서 온라인 및 모바일 교육 이용자 수가 2020년 3월 급격하게 증가한 바 있다. 중국 인터넷정보센터(CNNIC)에서 2020년 6월 발표한 '중국 인터넷 발전 현황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 3월 중국의 온라인 교육 이용자 수는 약 4억 2,000만 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6월보다 81.9% 증가하였다.

[글로벌 에듀테크(EduTech) 유니콘 (2020년 6월 29일 기준)]

기업명	국가	분류	마지막 투자 일자	투자액 / 투자 단계	기업 평가액 (억 달러)
Byju's	인도	튜터링	'20년 6월	~\$100M VC Top Up	~100
Yuanfudao	중국	튜터링	'20년 3월	\$1B Series G	78
Zuoyebang	중국	튜터링	'20년 6월	\$750M Series E	65
VIPKid	중국	언어	'19년 9월	\$150M Corporate Round	45
Udemy	미국	MOOC*	'20년 2월	\$50M Series E	20
Coursera	미국	MOOC	'19년 4월	\$103M Series E	17
Duolingo	미국	언어	'19년 12월	\$30M Series F	15
ApplyBoard	캐나다	유학	'20년 3월	\$78M Series C	14
Course Hero	미국	스터디 노트	'20년 2월	\$10M Series B	11
Quizlet	미국	스터디 노트	'20년 5월	\$30M Series C	10
Guild Education	미국	업스킬링	'19년 11월	\$157M Series D	10~
Knowbox	중국	튜터링	'19년 5월	\$150M Series D	10~
iTutorGroup	중국	언어	'19년 7월	Controlling Investment	10
Zhangmen	중국	튜터링	'19년 1월	\$350M Series E	10~
Huike	중국	OPM*	'18년 5월	\$200M Series D	10
17zuoye	중국	튜터링	'18년 3월	\$250M Series E	10
Age of Learning	미국	온라인 커리큘럼	'16년 5월	\$150M Series A	10
Udacity	미국	MOOC	'15년 11월	\$105M Series D	11
Hujiang	중국	온라인 커리큘럼	'15년 10월	\$157M Series D	10

Source: HolonIQ, 삼성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Note: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는 온라인 공개 수업, OPM(Online Program Management)은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관리를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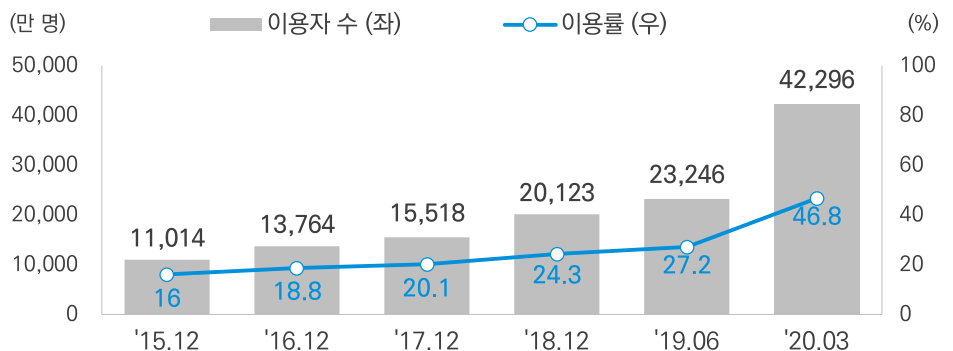
“
 코로나19가 확산된
 중국에서 온라인 및 모바일
 인터넷 교육 이용자
 수가 '20년 3월 급격히
 증가”

2020년 상반기 투자 받은 기업 중 주목해볼 만한 에듀테크 기업으로는 중국의 위안푸다오(Yuanfudao)를 꼽을 수 있다. 2012년 설립 이후, 5년 만에 유니콘으로 등극한 위안푸다오는 유치원 및 초중등(K-12) 학생에게 온라인으로 실시간 및 녹화 동영상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 기업은 위안티쿠(Yuantiku)라는 이름으로 처음 사업을 시작했는데, 당시에는 학생들이 자신의 학년, 학교, 교재 등을 입력하면, 시험 문제를 받아볼 수 있는 문제은행이었다. 이후 학생들이 공부 중 모르는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어 올리면, 풀이와 해답을 받아볼 수 있는 샤오위안 서우티(Xiaoyuan Souti)라는 질의응답(Q&A) 서비스를 론칭했다. 2014년 이후에 중국에서 이와 비슷한 서비스가 다수 출시되었는데, 위안푸다오가 그동안 축적해 온 문제은행 데이터베이스와 질의응답 데이터가 응답률과 응답 속도, 정확도를 높이는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지브라 AI(Zebra AI)와 같이 아동을 위한 영어 강좌를 포함해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구성된 강좌와 방대한 양의 시험 문제 데이터베이스, 실시간 Q&A 서비스가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안푸다오는 사업 초기에는 1:1 튜터링으로 사업 방향을 설정했는데, 이후 성장 과정에서 그룹 강의 중심의 온라인 강의로 사업을 전환하였다. 이는 기업이 중국 내 큰 교육 시장을 빠르게 흡수하고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게 된 배경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미국에서 전자담배 열풍을 일으킨 미국의 액상형 전자담배 기업 줄(JUUL)의 성공은 벤처·스타트업 업계에서도 특이한 케이스로 인식되고 있다. 대체로 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은 신기술 기반의 사업을 진행하거나, 기존에 없었던 시장, 비즈니스 모델을 창조하고 성장해 나간다. 하지만 줄이 진입한 산업은 혁신과 거리가 멀고, 각종 규제로 제한을 받는 담배 산업이다. 줄은 미국의 젊은 세대를 공략하며 USB로 충전하는 깔끔한 디자인의 전자담배를 출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연기가 잘 나지 않도록 하고, 사탕, 과일과 같은 향을 추가했다. 청소년 흡연 문제와 유해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지만, 벤처·스타트업이 거대한 장벽이 있는 시장에 진입해 새로운 분야를 개척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사례다.

[중국 온라인 교육 이용 추이]



Source: CNNIC('20.06), 삼정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
 코로나19 이후 언택트 소비
 선호 경향이 두드러지면서,
 음식 배달과 신선식품 배달
 이용률이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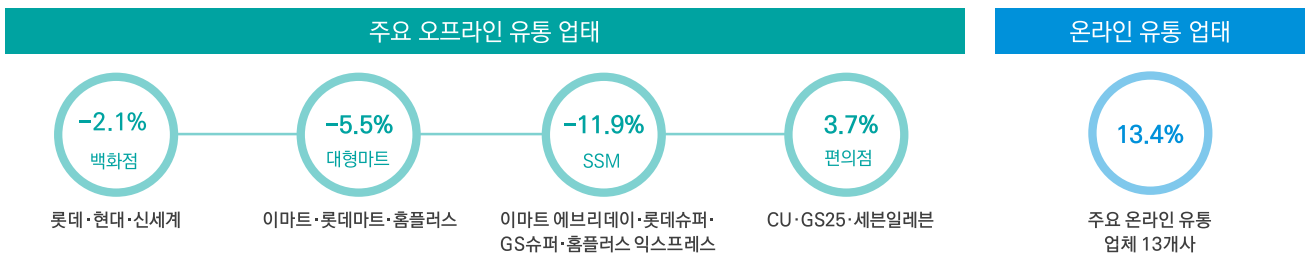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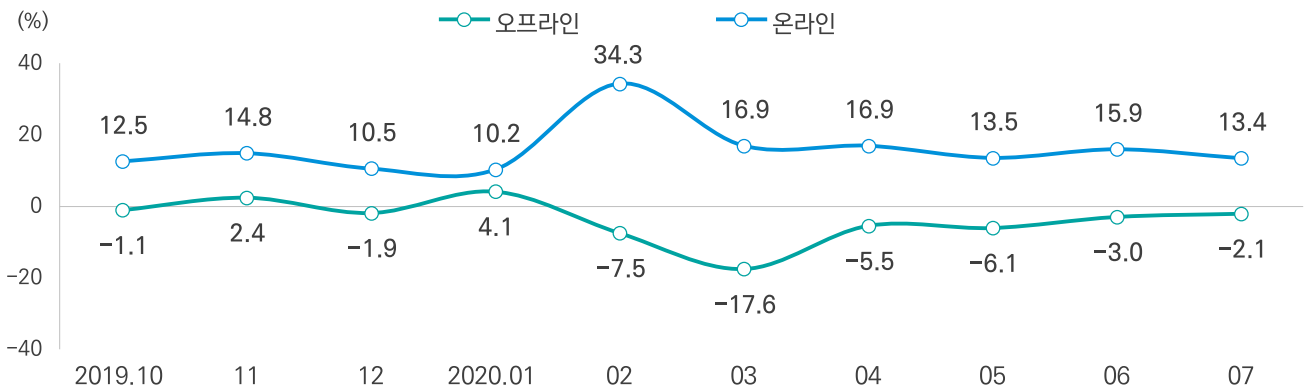
2. 유통·커머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 선호 경향이 두드러지면서, 음식 배달과 신선식품 배달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다. 백화점, 대형마트, SSM(기업형 슈퍼마켓)과 같은 오프라인 유통 산업은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으나, 온라인 유통 분야는 오히려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내의 경우,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월별 매출 증감률은 2020년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반면,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거래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온라인 유통 기업의 매출은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온라인 유통 서비스를 처음 이용하게 된 소비자 중 편의성을 절감한 고객들의 온라인 소비가 일정 수준 습관화되고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음식 및 신선식품 배달 기업의 가치는 앞으로도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통·커머스 분야의 글로벌 VC 투자 또한 음식과 신선식품 배달 플랫폼에 쏠렸다. 인도네시아의 이커머스 플랫폼 토크피디아(Tokopedia)를 포함해 3억 달러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한 기업들로는 영국의 배달 플랫폼 기업인 딜리버루(Deliveroo)와 미국의 도어대시(DoorDash)가 있었고, 신선식품 배달 플랫폼으로는 미국의 인스타카트(Instacart), 중국의 싱성유취안(Xingsheng Youxuan), 덩둥 마이카이(DingDong Maicai)가 3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받았다.

[국내 주요 온·오프라인 유통 업체 월별 매출 증감 추이 ('20년 7월, 전년동월대비)]



Source: 산업통상자원부(2020.08.28), '보도자료: '20년 7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전년동월 대비 4.4% 증가'
 Note 1: 매출액 증감률은 전년 동기 대비 기준, 전체 유통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값이 아닌, 유통 업체 일부를 대상으로 조사
 Note 2: 통계청의 '서비스업동향' 및 '온라인쇼핑동향'과는 지표의 포괄범위, 표본 등이 달라 양 기관 자료 간 증감 폭과 방향 등이 상이할 수 있음
 Note 3: 대형마트 및 SSM의 경우, 재난지원금 사용 제한의 영향이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

“ 주문 상품의 배송 속도, 신선도, 이용자 중심의 UI/UX, 상품의 다양성, 큐레이션이 중요한 요소 ”







이 기업들은 공통적으로 소비자의 주문 상품을 얼마나 빠르고 신선한 상태로 전달하는지, 이용자 중심의 UI(User Interface)/UX(User Experience)가 설계되었는지, 플랫폼 내에서 제공하는 상품이 얼마나 다양하며 소비자의 니즈에 부합하는 상품을 큐레이션해주는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업들은 이러한 서비스를 가능케 하기 위해 고객 데이터와 AI 기술을 적극 활용해 최적 경로를 탐색한다든지, 고객의 취향을 반영한 맞춤형 상품을 추천해주는 등 지속적으로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객의 주문 데이터를 바탕으로 레스토랑에게 메뉴를 컨설팅해주거나, 수요는 있지만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 공급을 맞춰주는 식으로 시장을 조정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일부 기업들은 공유 주방과 같은 분야를 확장하고, 기존의 배달 인력을 활용해 배달 대행 서비스로도 진출하고 있다.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는 플랫폼의 특성상, 이 업계 또한 2~3개 업체가 전체 시장을 점유하는 구조로 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말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독일의 딜리버리히어로(Delivery Hero)에 매각된 바와 같이,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M&A도 계속해서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상반기 3억 달러 이상 투자 받은 유통·커머스 기업]

음식 배달 신선식품 배달 이커머스

기업	국가	설립연도	투자액 (백만 달러)	사업 분야
 deliveroo	영국	2013	575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온디맨드 식당 음식 주문 및 배달 서비스 제공
 tokopedia	인도네시아	2009	500	인도네시아 최대의 전자상거래 유니콘 기업
 DOORDASH	미국	2013	400	미국, 캐나다, 호주에서 온디맨드 식당 음식 주문 및 배달 서비스 제공
 instacart	미국	2012	325	미국과 캐나다에서 파트너십을 맺은 유통 점포에서 장보기·배달 대행 서비스
 兴盛优选 Xingsheng Youxuan	중국	2018	300	중국에서 장보기·배달 대행 서비스 제공
 叮咚买菜 DingDong Maicai	중국	2014	300	채소, 과일, 고기와 같은 신선식품 주문 및 배달 서비스

Source: Bloomberg, Pitchbook,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인스타카트(Instacart)는 '20년 6월 2.25억 달러 투자와 '20년 7월 4일 1억 달러의 추가 투자를 받은 달을 포함

3. 헬스케어·바이오

2020년 상반기 3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받은 헬스케어·바이오 기업은 8개였다. 그 중 6개사는 유전공학, 백신 개발 분야의 헬스케어 관련 기업이고, 2개사는 미생물(Microbe)을 활용한 바이오 기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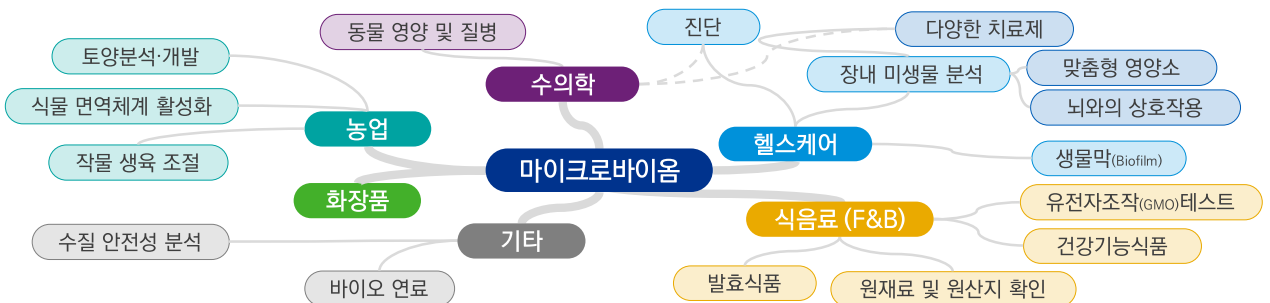
2020년 상반기 3.9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한 그레일(Grail)은 DNA 염기서열 분석 기술로 주목을 받아온 일루미나(Illumina)에서 2016년 분사했다가 2020년 9월 모기업 일루미나에 재합병된 기업이다. 흔히 암의 유무와 암 종류를 판독하기 위해 환자의 조직을 직접 떼어내는 조직 생검 방식이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조직 검사는 환자의 고통이 수반되지만, 그레일은 간단한 혈액 검사로 암을 진단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암이 생기면 종양이 내뿜는 미량의 DNA가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액체 생검(Liquid Biopsy)으로 검출이 가능하다. 이는 별도의 절개 등의 침습적 시술 없이도 혈장 내 암 세포를 파악할 수 있어서 환자에게 효용성이 높다. 액체 생검 방식으로 암을 조기에 진단하는 방법이 얼마나 높은 정확도를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지만, 액체 생검을 활용한 암 진단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의학계와 산업계의 뜨거운 이슈 중 하나는 마이크로바이옴(Microbiome)이다. 마이크로바이옴은 미생물(Microbe)과 생태계(Biome)의 합성어로 특정 환경에서 존재하는 미생물과 이들의 유전 정보 전체를 의미한다. 마이크로바이옴은 광의적으로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과 식물의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등 미생물을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마이크로바이옴은 바이오 산업 중 얼마 남지 않은 미개척 분야로, 많은 글로벌 기업들은 마이크로바이옴을 10년 후 먹거리로 보고 있다. 특히, 일상적 식습관에서부터 신수종 사업 개발, 인류 건강 증진 등 사회경제에 혁신적 기여가 기대되는 분야로 잠재력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2020년 상반기 시리즈F 단계에서 5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한 인디고 어그리컬처 (Indigo Agriculture)는 2016년 미국에서 설립된 바이오·농업 스타트업이다. 인디고는 마이크로바이옴을 작물 종자에 적용해 식물의 수분 활용성을 증대시키는 등 극한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농산물 품종을 개발하고 있다. 인디고는 작물 생산 환경과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 일반 품종보다 뛰어난 품종 개발에 이용하고 있다.

“
 마이크로바이옴은
 사회경제에 혁신적 기여가
 기대되는 분야로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분야
 ”





[마이크로바이옴의 활용 분야]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마이크로바이옴이 몰고 올 혁명'('20.01')

[2020년 상반기 3억 달러 이상 투자 받은 헬스케어·바이오 기업]

■ 헬스케어 ■ 바이오

기업	국가	설립 연도	투자액 (백만 달러)	투자 단계	사업 분야
 MGI 华大智造	중국	2016	1,000	Series B	생명과학 연구, 의학 및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시퀀싱 기기, 장비, 소모성 품목 및 시약을 생산
 Sana Sana Technology	미국	2018	700	Series B	유전공학법(Engineered-cell) 기반의 치료제 개발
 indigo	미국	2014	500	Series F	미생물(Microbe) 연구를 통해 식물 건강 및 농업 생산성 증진
 Lyell	미국	2018	493	Series C	생명공학 기업으로 유전자 조작 T세포 치료법 개발
 GRAIL	미국	2015	390	Series D	혈액검사를 통해 암 유형과 발원 조직 판별
 MANUSBIO	미국	2011	340	Series B	바이오 제조 기업으로 미생물을 활용해 지속가능한 의약품, 첨가제, 화장품 등을 개발
 CUREVAC مركز لقاحات كورونا	독일	2000	333	-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개발 기업으로 종양학 약 개발, 코로나19 백신 연구개발 ('20년 8월 나스닥 상장)
 EVEREST MEDICINES	중국	2017	310	Series C	후기 임상 단계의 바이오 제약사로 혁신적인 치료법의 라이선싱, 개발 및 상업화에 초점

Source: Bloomberg, Pitchbook, 삼정KPMG 경제연구원



4. 모빌리티

2020년 상반기 모빌리티 분야에서 투자 받은 기업은 10개로 가장 많았는데, 그 절반은 승차공유 서비스 기업, 나머지 절반은 모빌리티 기술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와 오토바이 승차공유 서비스로 사업을 시작한 고젝(Gojek)과 디디추싱(Didi Chuxing), 그랩(Grab)의 공통적인 특징은 모두 생활 전반의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슈퍼 애플리케이션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들은 고페이(Go Pay), 디디페이(DiDi Pay), 그랩페이(Grab Pay)와 같은 결제 서비스를 추가하는 데 이어, 음식 배달, 물류 배달, 공과금 납부와 같은 서비스를 하나씩 추가하며 자사 플랫폼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모빌리티 기술 관련 기업들로는 구글 산하의 자율주행 기업인 웨이모(Waymo), 중국의 자율주행 플랫폼 개발 업체인 포니닷컴(Pony.ai), 디디추싱의 자율주행 기술 연구개발(R&D)을 담당하는 디디웬야(Didi Woya)³⁾가 있었다. 2020년 7월에 나스닥에 상장한 중국의 전기자동차 제조 업체인 리오토(Li Auto), 수직으로 이착륙이 가능한 전동수직이착륙기(eVTOL) 제작사인 조비 에비에이션(Joby Aviation)도 있었다.

2009년에 미국에서 설립된 조비 에비에이션은 항공 택시 사업을 준비하는 우버 에어(Uber Air)의 파트너사 중 하나로 2023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20년 1월에는 일본 도요타(Toyota)로부터 3.9억 달러 규모(시리즈C)의 추가 투자를 받았으며 도요타와의 기술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 발표했다.

최근 도요타를 포함해 여러 자동차 기업들이 도심항공 모빌리티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또한 2020년 세계가전박람회 CES에서 우버와 파트너십을 맺고 에어택시 시장에 뛰어든다고 밝히고 'S-AI1'으로 불리는 콘셉트 플라잉카를 공개한 바 있다.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 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이 협력해 만들어 나갈 미래의 항공 모빌리티 분야가 어떻게 변화할지 앞으로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2020년 상반기 디디추싱은 승차공유 서비스와 자율주행 기술 부분에서 모두 투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디디추싱은 차량 공유 서비스를 넘어 2018년 자전거 렌탈 플랫폼인 디디 바이크(Didi Bike, Qingju)를 출시하는 한편, 자체적인 자율주행 기술 개발로 차량 공유 서비스를 혁신하려 하고 있다. 승차공유 서비스에 완전자율주행 기술이 접목되었을 때, 이동에 대한 개념부터 차량 소유, 자동차 제조업, 일자리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변화가 예상된다.

“

승차공유 서비스 기업은
생활 전반의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슈퍼
애플리케이션으로 발전 중

”

3) 디디추싱은 2019년 8월 자율주행 연구개발 부문을 분사하고 자회사 디디웬야(Didi Woya)를 설립

“ 모빌리티 기업 중 절반은 승차공유 서비스 기업, 나머지 절반은 모빌리티 기술 관련 기업 ”

[2020년 상반기 3억 달러 이상 투자 받은 승차공유 서비스 기업]

기업	국가	사업 분야
 gojek	인도 네시아	오토바이 호출 서비스로 시작해, 현재는 음식 배달, 결제(Go Pay) 등 생활 전반의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슈퍼앱으로 발전
 DiDi DiDi Bike	중국	디디추싱은 2018년 자전거 렌탈 플랫폼 DiDi Bike (Qingju)를 출시
 Grab	싱가포르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인 차량 공유 플랫폼으로 현재는 음식 배달(Grab Food), 결제(Grab Pay), 물류배달 등의 서비스 제공
 via	미국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로, 지자체, 교통 기관, 민간 기업에 최적화된 온디맨드 차량 호출 기술을 라이선싱하는 사업을 진행
 DiDi DiDi Chuxing	중국	차량 공유 서비스로 시작해 현재는 음식 배달, 결제(DiDi Pay)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AI 기술 개발에도 집중하고 있음

Source: Bloomberg, Pitchbook, 삼정KPMG 경제연구원

■ 슈퍼 애플리케이션

[2020년 상반기 3억 달러 이상 투자 받은 모빌리티 기술 기업]

기업	국가	사업 분야
 WAYMO	미국	구글 산하의 자율주행 기술 개발 기업으로 주행 실적, 기술 성숙도 면에서 경쟁 기업들보다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pony.ai	중국	자차 기술로 완전자율주행 플랫폼 개발을 목표로 함. 도요타와 제휴를 맺고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음
 DiDi Didi Woya	중국	'19년 8월 디디추싱은 자율주행 연구개발 부서를 분사하고 자회사 디디위야(Didi Woya) 설립. '20년 5월부터 상하이에서 자율주행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범 운영 중
 理想智造 Li Auto (CHJ)	중국	전기와 가솔린을 모두 이용해 차량을 충전하는 전기차 제조사로 '20년 7월 나스닥에 상장
 JOBY AVIATION	미국	항공 택시용 수직이착륙기(VTOL) 개발사로 2023년 상용화를 목표로 함. 우버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며, 도요타로부터 투자를 받음

Source: Bloomberg, Pitchbook, 삼정KPMG 경제연구원

■ 자율주행 ■ 전기차 ■ VTOL

5. 금융·핀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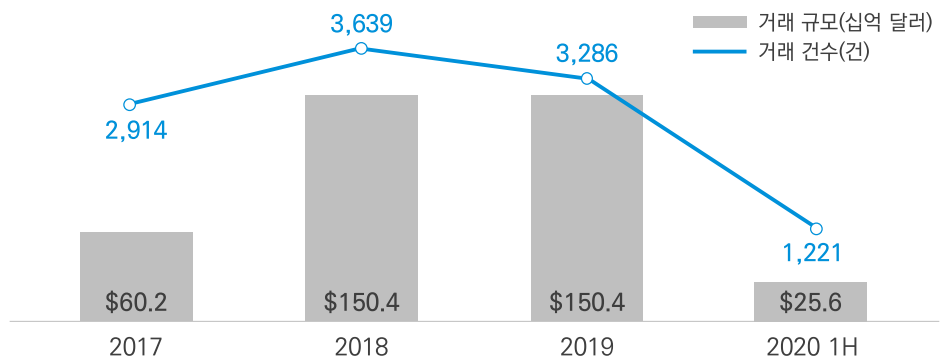
KPMG가 전 세계 핀테크 시장 내 주요 동향을 담은 보고서 ‘Pulse of Fintech H1 2020’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글로벌 핀테크 시장에는 1,221건의 딜에 총 256억 달러의 PE, VC, M&A 자금이 투입되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부진한 실적인데, 코로나19의 여파로 2020년 상반기에 초대형 M&A 거래가 부진했던 것이 주된 이유로 지목되고 있다. 금융·핀테크 분야에서의 글로벌 VC 투자는 성장 단계(growth stage)로 스케일업한 벤처·스타트업을 중심으로 투자가 이뤄졌던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상반기 3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받은 8개의 금융·핀테크 기업 중 인도의 나비 테크놀로지(Navi Technology)를 제외하고 7개는 이미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유니콘 기업이었다. 투자 받은 핀테크 기업 중 상당수는 2010년 이후 핀테크가 확산되기 시작한 초창기와 2014년 확산기 이후에 설립됐으며, 2018년 이후로는 인도와 같은 이머징 마켓에서의 핀테크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업 분야는 ① 네오뱅크(인터넷 전문은행)부터, ② 지급결제, ③ 자금조달 및 대출, ④ 웰스테크(Wealth-tech)까지 다양했으며, 특히 지급결제 부문에서의 투자가 두드러졌다. 8억 5,000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한 스트라이프(Stripe)를 포함해 7억 달러의 투자를 받은 차임(Chime), 5억 달러의 투자를 받은 레볼루트(Revolut)와 같이 지급결제에 특화된 핀테크 기업은 사업 역량과 수익성, 사업 확장성 부분에서 인정받고 후기 단계의 VC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플랫폼, 디지털 बैं킹과 같은 핀테크 관련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2020년 상반기 VC 투자는 상대적으로 안정 궤도에 오른 핀테크 기업에 집중되었고, 2020년 하반기에도 신생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는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기업 및 가계 대출의 부실 위험도가 높아 금융·핀테크 기업에게도 타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기업은 이런 시기일수록 더욱 리스크 관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핀테크 관련 글로벌 총 투자 활동(VC, PE, M&A)]



Source: KPMG ‘Pulse of Fintech H1 2020’

Note1: Pitchbook의 데이터를 활용

Note2: 2020년은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완료(Completed)된 거래를 기준으로 집계

“ 사업 역량과 수익성, 사업 확장성 측면에서 인정받은 후기 단계의 핀테크 기업에 투자가 집중 ”

[2020년 상반기 3억 달러 이상 투자 받은 글로벌 금융·핀테크 기업]

기업	국가	설립 연도	투자액 (백만 달러)	투자 단계	사업 분야
 stripe	미국	2011	 850 Payment	Series G (Unicorn)	카드, 은행 계좌상 온라인 지급결제 솔루션 제공
 chime	미국	2013	 700 Payment	Series E (Unicorn)	간편결제 서비스로 시작해 잔돈 저축 프로그램 운영까지 사업 확대
 N26	독일	2013	 570 Neobank	Series D (Unicorn)	인터넷으로 계좌를 개설하고 카드 발급. 애플리케이션으로 온라인 banking 관리 서비스 제공
 Revolut	영국	2015	 500 Payment	Unicorn	유럽 내 낮은 수수료 송금, 환전, P2P 지불 등의 서비스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제공
 robinhood	미국	2013	 430 Weath-tech	Unicorn	주식 매매와 ETF 거래에 대한 무료 수수료 거래 서비스
 navi	인도	2018	 397 Lending	Angel	애플리케이션으로 쉽고 빠르게 50만 루피(약 800만원) 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서비스
 avidxchange	미국	2000	 388 Payment	Series F (Unicorn)	중소기업 전용 청구서 발급 서비스
 nu bank	브라질	2013	 300 Neo-bank	Unicorn	온라인 banking과 함께 무계좌 신용카드 발급 서비스 제공

Source: Bloomberg, Pitchbook,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M&A 사례는 제외

6. 소프트웨어·솔루션

소프트웨어·솔루션 기업 중 상당수는 B2B 사업을 영위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SaaS(Software-as-a-Service) 기업들이었다. 서비스로서의 소프트웨어로 불리는 SaaS는 PaaS(Platform-as-a-Service), IaaS(Infrastructure-as-a-Service)와 함께 클라우드 서비스 종류 중 하나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가 관리·운영하는 범위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그 중 SaaS는 기업에서 업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기능을 클라우드 환경에서 필요한 만큼 빌려 쓰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이 필요하고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IBM 등 글로벌 테크 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PaaS, IaaS 시장과는 달리 SaaS 분야의 경우 혁신적인 사업 모델을 만들어 낼 경우 벤처·스타트업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획의 영역으로 여겨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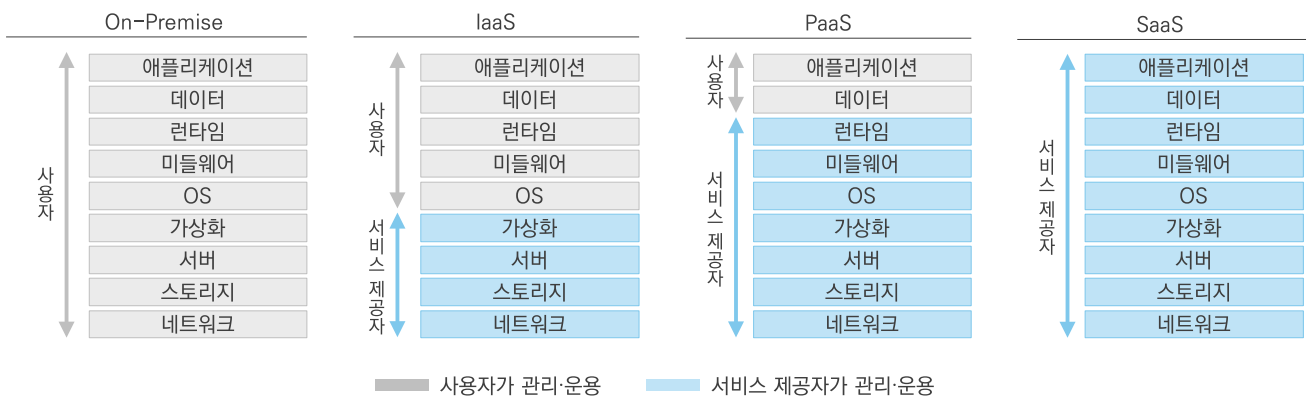
“ SaaS 분야는 혁신적인 사업 모델을 만들어 낼 경우 벤처·스타트업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획의 영역 ”

스노우플레이크(Snowflake)는 2012년 미국에서 설립된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웨어하우징(Data Warehousing) 기업이며, 삼사라(Samsara)는 2015년 미국에서 설립된 산업용 사물인터넷(IoT) 솔루션 기업이다. 센서와 소프트웨어, 클라우드를 결합해 기업이 업무 전체 프로세스의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 삼사라의 솔루션은 운송, 물류, 제조, 건설 등 1만 5,000개 기업이 활용하고 있다. AI, 데이터 애널리틱스(Data Analytics) 기술을 활용해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기업 운영을 가능하도록 한다.

리미오(Limio)는 2017년 영국에서 설립된 구독형 커머스 소프트웨어 기업이다. 미국의 토스트(Toast)는 2011년 설립되고 2013년 서비스를 본격 출시한 클라우드 기반의 레스토랑용 POS(Point of Sales) 시스템 기업이다.

넛스코프(Netskope)는 2012년 설립된 미국의 클라우드 기반 보안 솔루션 스타트업이며, 중국의 마이닝램프(MiningLamp)는 AI·빅데이터 분석 기업이다. 마이닝램프는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통해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지식과 인사이트를 제공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

[IaaS, PaaS, SaaS 서비스 모델에 따른 구분]



Source: 삼성증권,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IaaS는 Infrastructure-as-a-Service, PaaS는 Platform-as-a-Service, SaaS는 Software-as-a-Service의 약어

7. ICT 제조업

ICT 제조 기업으로는 VR(가상현실)·AR(증강현실) HMD(Head Mounted Display)를 제작하는 매직리프(Magic Leap),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에 특화된 생활 가전 제품을 만드는 중국의 로올(Royole)이 있다. 2020년 상반기 3억 달러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한 55개의 기업 중 대부분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ICT 서비스 기업들로 ICT 제조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특정 제품을 제조하는 하드웨어 스타트업의 경우,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대량 생산을 하기까지 대규모 자본 출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ICT 제조 분야에 벤처·스타트업의 진출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상반기 3억 5,000만 달러 규모의 투자금을 유치한 매직리프는 2010년 설립 당시 누구나 쉽게 AR 경험을 누릴 수 있는 AR의 대중화를 목표로 했다. 하지만 오랜 연구 개발 끝에 2018년 최초로 선보인 1세대 HMD 기기 ‘매직리프원 크리에이터 에디션(Magic Leap One Creator Edition)’은 대중화와는 거리가 멀었다. 2,300달러가 넘는 비싼 가격에 출시되었고, 높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일반 소비 시장에서 수요층을 확보하고 신시장을 여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아직까지는 AR 헤드셋 기술이 성숙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매스마켓에 안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최근 매직리프는 시장이 불투명한 B2C 시장에서 헬스케어, 제조, 엔지니어링, 교육 등 엔터프라이즈(B2B) 부문으로 사업의 축을 전환하려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2년에 설립된 중국의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제조사 로올은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공대 졸업생이 창업한 회사다. 로올은 설립 6년만에 중국 선전을 대표하는 유니콘 기업이 되었다. 2018년 베이징에서 첫 폴더블 스마트폰 ‘플렉스파이(FlexPai)’를 출시한 이후, 2020년 1월에 개최된 세계가전박람회(CES)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구부러진 디스플레이를 스피커와 가방, 의류 등에 적용해 눈길을 끌었다. 아직까지 완성도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중국 스타트업이 LCD를 넘어 플렉서블 OLED 기술까지 공략하려는 움직임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로올(Royole)의 세계가전박람회(CES) 2020 전시 모습]



Source: 삼성KPMG 경제연구원

“
ICT 제조 기업의 경우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대량
생산을 하기까지 대규모
자본 출자가 필요
”

“ 오요(OYO)와 지룸(Ziroom)은 부동산과 기술을 결합한 프롭테크(PropTech) 분야의 유니콘 ”

8. 부동산·임대

2020년 상반기, 전 세계적으로 여행 및 호텔업이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오요(OYO)는 8억 달러, 중국의 지룸(Ziroom)은 5억 달러 규모의 투자금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이 두 업체는 부동산(Property)과 기술(Technology)을 결합한 프롭테크(PropTech) 분야의 대표적인 유니콘 기업이다.

2013년 인도에서 1개 호텔로 사업을 시작한 오요는 불과 6년 만에 인도에서만 1만 8,000여 개의 호텔을 운영하고, 중국 300여 개 도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영국, 미국 등 세계 각지에 호텔을 둔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했다. 오요는 객실 수 100실 이하의 호텔이 전 세계 호텔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데도, 이 영역에 특화된 글로벌 체인이 없다는 점, 그리고 중저가 인도 호텔의 경우 품질과 안전을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주요 페인 포인트(Pain point)로 삼고, 해당 시장에 진입했다.

오요는 1박에 25~50달러 수준의 저렴한 호텔에서 균일한 품질과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했다.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30여 개의 표준 매뉴얼을 만들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무료 와이파이, TV, 흰색 침대와 시트 등을 매뉴얼에 포함시켰다.

사업 초기 오요는 호텔 소유주로부터 호텔을 임대해 오요의 매뉴얼에 맞게 개선시키고 객실을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이후 오요라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구축한 이후 파트너 호텔들과 제휴를 맺기 시작했고, 오요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브랜드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수익 모델을 변경하였다. 표준화된 매뉴얼로 효율적인 호텔 운영이 가능해져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면서도 시설과 서비스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었으며, 오요의 객실 예약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규 고객도 유치할 수 있게 되었다.

[오요(OYO)의 성공 요인]

<p>1 서비스, 품질 표준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 내에서 표준화된 호텔 서비스 및 품질에 대한 니즈 발견 • 호텔(신규 고객 유치)과 고객(향상된 서비스와 품질), 플랫폼(수수료) 모두의 효용을 높일 수 있는 모델을 고안 • 어떤 호텔에 가더라도 표준화된 서비스와 가격을 제공 • 에어비앤비(Airbnb)의 애그리게이터(Aggregator) 비즈니스 모델과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한 우버(Uber) 초창기 사업 모델을 결합한 형태
<p>2 사업 모델 고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호텔 리브랜딩 → OYO 브랜드 아이덴티티(BI) 구축 → 프랜차이즈화 • 초창기에는 호텔을 리스해서 사업을 확장했으며, 현재는 호텔에 파트너십 모델을 제안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 지룸은 주택을 직접 매입 혹은 임대 후, 내부를 보수하고 세입자에게 월 단위로 임대 ”

지룸은 2011년 중국의 부동산 중개업체인 리엔지아(Lianjia)의 작은 프로젝트로 시작해 2016년 스피나아웃한 유니콘 기업이다. 지룸은 주택을 직접 매입 혹은 임대 후, 내부를 보수하고 세입자에게 월 단위로 임대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미국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프롭테크 스타트업 오픈도어(OpenDoor)와 비슷한 사업을 중국에서 하고 있다.

지룸은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을 주요 타깃 고객층으로 삼고, 매물 탐색부터 결제까지 임대의 전 프로세스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용자가 추가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면 주기적으로 청소, 이사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스마트 도어락, AI 방법 CCTV, IoT 센서 등을 도입했다. 현재 지룸은 자사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지룸(Ziroomer)을 위한 주기적인 소셜 이벤트도 개최하고, Z-Space라는 소셜 공간을 만드는 등 주택 임대를 넘어 문화 생활을 제공하는 하나의 커뮤니티로 발전하고 있다.

[지룸(Ziroom)의 성공 요인]

- | | |
|---------------------------------------|--|
| <p>1
정확한 소비자 타깃팅</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 등 밀레니얼 세대를 타깃으로 함 • 지룸(Ziroomer)을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와, 공간(Z-Space)을 형성하고, 주기적으로 소셜 이벤트 개최 • 주택 임대부터 문화 생활까지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발전 중 |
| <p>2
스마트폰으로 End-to-End 서비스 제공</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의 전 프로세스(매물 탐색~결제)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 •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면 주기적으로 청소 서비스, 이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스마트 도어락, AI 방법 CCTV, IoT 센서 도입 |

Source: 삼성KPMG 경제연구원



9. 게임·미디어·콘텐츠

2020년 상반기 미국의 숏폼(Short-form) 동영상 기업인 퀴비(Quibi)는 7.5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며 OTT(Over-The-Top,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시장의 틈새를 파고드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숏폼 콘텐츠란 일반적으로 10분 이하의 영상 콘텐츠를 의미한다.

퀴비는 2018년 드림웍스의 공동 창업자 제프리 카젠버그(Jeffrey Katzenberg)와 이베이의 초대 CEO인 맥 휘트먼(Meg Whitman)이 설립한 기업으로 설립 초기 많은 관심과 투자를 받았다. 창업자의 과거 성공 경험과 경력이 초기 VC 투자 유치 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진다. 퀴비는 2020년 4월 정식으로 미국과 캐나다에서 서비스를 개시했으며, 스마트폰 영상에 특화되어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면서 보기에 적합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퀴비는 단순히 영상을 짧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큐멘터리, 뉴스 클립, 리얼리티 프로그램, 스포츠 하이라이트 등 고품격의 짧은 영상을 지향하고 있다. 광고 포함 시 월 4.99달러, 광고 미포함 시 7.99달러의 구독형 서비스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자체 제작한 오리지널 콘텐츠 50여 편을 공개해 놓은 상태이며, 2020년 말까지 그 수를 125편으로 늘릴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2010년 넷플릭스가 OTT 시장에 큰 변화를 일으킨 것처럼, 2020년에는 숏폼 동영상 기업이 제 2의 OTT 붐을 일으킬 것으로도 전망이 되고 있다. 최근 숏폼 영상이 부상하게 된 원인으로는 크게 3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 첫째는 영상 콘텐츠가 스마트폰과 같은 개인 기기를 활용해 소비되는 방식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숏폼 영상의 경우, 시청 시간이 짧고 전반적으로 내용도 가벼워 스마트폰 기기로 시청하기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는 이용자의 변화를 꼽을 수 있다. 태어났을 때부터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접해온 MZ 세대⁴⁾의 경우, 보다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정보를 효율적으로 소비하려는 경향이 있다. 내용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숏폼 콘텐츠는 MZ 세대의 니즈에 잘 부합한 것으로 분석된다.

마지막으로는 기존 OTT 콘텐츠에 대한 누적된 피로감을 들 수 있다. 가령 넷플릭스(Netflix)는 시즌제 드라마를 한 시즌 통째로 공개하고 있고, 유저 사이에서 이를 한꺼번에 몰아보게 하는 이른바 ‘빈지 워치(Binge Watch)’⁵⁾ 소비 행태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과도한 빈지 워치는 수면 부족, 우울증과 같이 건강을 해치는 요인으로 지목을 받고 있다.

“
최근 숏폼(Short-form)
동영상 기업들은 OTT
시장의 틈새를 파고들고
있음

”

4) MZ 세대란 1980년대~1990년 초반 출생한 밀레니얼(Millennial) 세대와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출생한 Z세대를 통칭.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최신 트렌드와 함께 남과 다른 이색적인 경험을 추구하는 특징을 보임

5) 빈지 워치(Binge Watch)란 폭음 또는 폭식을 뜻하는 빈지(Binge)와 워치(Watch)를 합한 신조어

“
 숏폼 영상이 새로운 시장을
 열 것인지, 일시적 유행에
 그칠지는 지켜봐야 할 것
 ”

하지만, 과연 숏폼 영상이 새로운 신시장을 열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유행에 그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첫 번째 우려 사항은 숏폼 동영상 기업들이 고객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이다. 고객들이 구독 서비스를 해지하지 않고 계속 이용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양질의 콘텐츠 공급이 필요하다. 퀴비는 자체 콘텐츠 개발에도 힘쓰고 있지만, 오리지널 콘텐츠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같은 서비스와 견주어 봤을 때 아직까지 현저히 적은 수준이다.

실제로 애플리케이션 분석 기업인 센서타워(Sensor Tower)는 퀴비의 초기 이용자 중 92%는 무료 이용 기간 이후 구독 서비스를 취소했다고 언급했다.⁶⁾ 이후, 퀴비 측은 이 수치가 정확하지 않다고 반박했지만,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⁷⁾

두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낮은 진입장벽이다. 응축되고 간결한 콘텐츠가 최근 각광받으면서, 기존의 OTT, SNS 기업들도 숏폼 트렌드에 발맞추어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다. 가령 넷플릭스의 경우, ‘브루노라니끼!’, ‘러브, 데스+로봇’과 같이 일부 작품을 회당 러닝타임 15분 이내로 잘라서 방송하고 있다. 2020년 8월 넷플릭스에 공개한 오리지널 시리즈 ‘도시괴담’ 또한 회당 러닝타임은 7~8분 정도로 짧다.

페이스북은 2020년 8월, 15초 길이의 짧은 동영상 공유하는 SNS 서비스인 ‘릴스(Reels)’를 출시했다. 유튜브 또한 2020년 9월, 10분 미만의 콘텐츠를 다루는 숏폼 영상 전문 플랫폼 ‘쇼츠(Shorts)’의 베타 서비스를 인도에서 처음으로 시작했고, 조만간 더 많은 국가로 확장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숏폼 동영상 기업들은 단순히 분량이 짧은 영상을 다룬다는 점 외에도 이용자의 유료 지불의사(WTP)를 높이기 위한 차별화된 요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6) TechCrunch, ‘Report says Quibi lost 92% of its earliest users after free trials expired’, 2020.07.09

7) Fortune, ‘Quibi says report that it lost 92% of early subscribers is incorrect by an order of magnitude’, 2020.07.10

10. 기타

앞서 살펴본 어떤 카테고리에도 넣기 모호한 분야의 기업으로는 민간 우주 개발 업체인 스페이스X(SpaceX)와 암호화폐 거래소 백트(Bakkt), 중국의 LTL(Less-than-truckload) 운송 기업인 ANE 로지스틱스(ANE Logistics)가 있다.

일론 머스크(Elon Musk)가 이끌고 있는 스페이스X는 미국 나사(NASA)에 의해 독점되다시피 한 우주선 사업을 민간 영역으로 끌고 왔다는 점에서 투자자로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20년 8월에는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두 달간 머물렀던 NASA 우주비행사 2명을 스페이스X의 '크루 드래곤(Crew dragon)' 캡슐에 태워 지구로 귀환시키기도 했다. 스페이스X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위성 인터넷망 구축 프로젝트 스타링크(Starlink)를 포함해 2030년까지 화성에 8만 명을 이주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도전적인 프로젝트를 이어가고 있다.

분석 기간 이후인 2020년 8월 스페이스X는 460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고, 19억 달러가 넘는 추가 자금을 확보했다. 어찌 보면 무모해 보이는 시도들이 하나씩 현실화되면서 지속적으로 투자자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2020년 3월, 3억 달러 규모의 시리즈 B 투자를 유치한 백트(Bakkt)는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와 증권거래소 사업자인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ICE), 마이크로소프트, 스타벅스, 보스턴컨설팅그룹(BCG) 등이 함께 설립한 미국의 암호화폐 거래소다. 2019년 9월 암호화폐 거래소를 개소한 이후, 백트는 암호화폐를 포함해 포인트, 게임 토큰 등 모든 종류의 디지털 자산을 통합해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 자사 애플리케이션에서 암호화폐 거래뿐만 아니라 지급 결제, 디지털 지급 등의 기능도 추가하며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는 모습이다.'

“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는
NASA의 우주선 사업을
민간 영역으로 끌고 왔다는
점에서 기대됨

”



2020년 상반기 국내 벤처·스타트업 투자 동향과 트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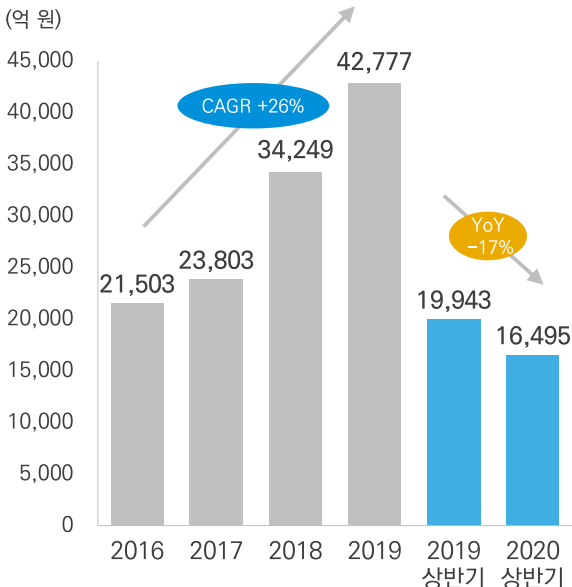
“ 2020년 상반기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내 벤처·스타트업 투자 금액이 전년 동기 대비 17% 감소 ”

국내 벤처·스타트업 투자 현황

국내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금액과 투자 유치 기업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국내 벤처 기업에 대한 신규 투자는 2019년 1,608개 기업에 대해 4조 2,777억 원이 투자되어, 기업 건수는 전년 대비 14.9%, 투자 금액은 24.9% 증가했다. 2012년 이후 국내 벤처 기업 신규 투자는 계속해서 증가해 왔으며, 2016년(2조 1,503억 원)부터 2019년(4조 2,777억 원)까지 투자 금액의 연평균 성장률은 26%에 이른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전 세계 경제를 강타한 2020년 상반기에는 이전과는 다른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2020년 상반기 국내 벤처 기업에 대한 신규 투자 금액은 1조 6,49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3% 감소했다. 특히 투자 유치 기업 건수가 789건으로 전년 대비 7% 감소한 데 비해, 투자 금액 감소세가 더욱 급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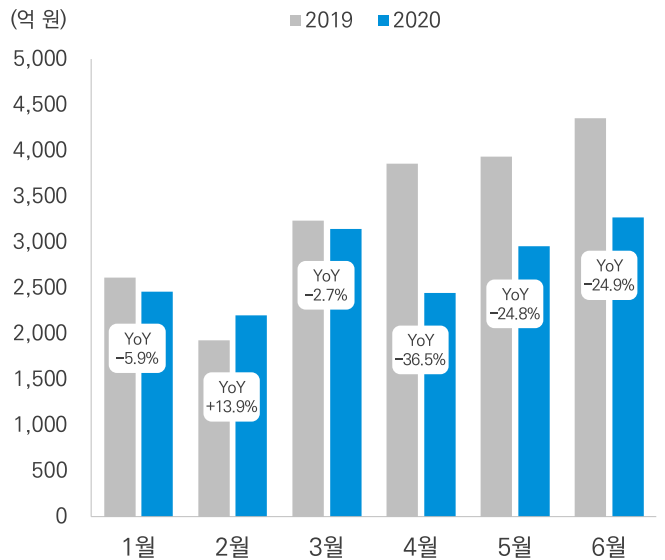
2020년 상반기 월별 신규 투자 금액 추이를 보면 코로나19의 영향력이 더욱 확실하게 나타난다. 2020년 월별 투자금은 1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5.9% 감소, 2월에는 13.9% 증가, 3월에는 2.7% 감소에 그쳤으나, 2월부터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한 코로나19의 영향력이 가시화된 4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36.5%가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보통, 벤처 투자가 발굴에서 실제 투자까지 2~3개월 정도의 시간차를 두고 발생하는 것을 감안하면, 2월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벤처 투자에 대한 발굴 자체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벤처 투자는 2020년 3분기경에 회복 양상을 보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VC업계에 따르면, 2분기부터 투자처 발굴 활동이 비교적 정상적으로 재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로부터 2~3개월이 지난 시점인 3분기에는 투자자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16~'20년 상반기 국내 벤처·스타트업 투자액 추이]



Source: 중소벤처기업부, 삼성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19/'20년 1~6월 국내 벤처·스타트업 투자 비교]



Source: 중소벤처기업부, 삼성KPMG 경제연구원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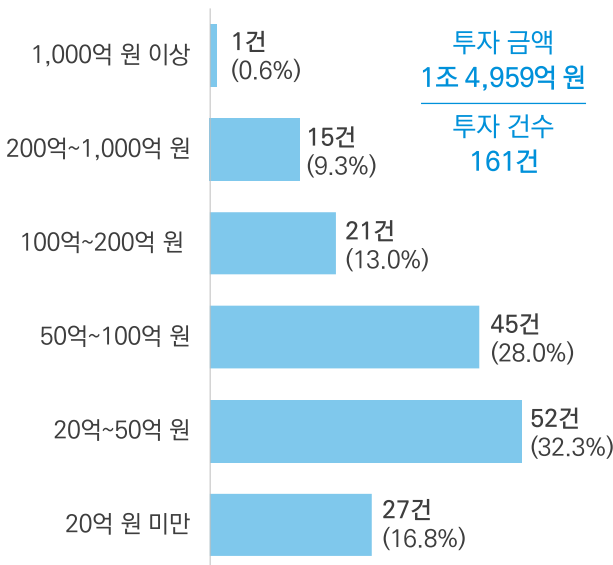
2020년 상반기 국내 벤처·스타트업 투자 현황

2020년 상반기 국내 벤처·스타트업 투자 중 투자 규모가 밝혀진 데이터를 집계한 결과, 총 투자액은 1조 4,959억 원, 투자 건수는 161건으로 나타났다. 투자 금액 규모별로 나눠보면, 1,000억 원 이상의 대형 투자는 1건으로, 신선식품 이커머스 쇼핑몰인마켓컬리를 운영하는 컬리에 투자되었다. 200억~1,000억 원 사이의 중대형 투자는 15건, 9.3%의 비중을 보였으며, 가장 큰 비중을 기록한 것은 32.3%(52건)를 차지한 20억~50억 원 사이 구간이었다. 50억~100억 원 구간 투자는 45건으로 28%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20억~100억 원 사이의 투자가 포함 97건, 62.3%에 이를 정도로 투자가 몰리는 경향을 보였다. 2020년 상반기에는 전체 투자 금액 자체도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지만, 대형 투자 또한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2019년 상반기에 1,000억 원 이상 투자 받은 기업이 야놀자(6월, 약 2,100억 원), 직방(6월, 약 1,600억 원), 컬리(4월, 약 1,000억 원), 샌드버드(5월, 약 1,200억 원)까지 4개 스타트업에 이르렀다는 것을 감안하면 2020년 상반기에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대형 투자 또한 조심스럽게 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 2020년 상반기 규모가 집계된 국내 벤처 투자 금액은 1조 4,959억 원, 투자 건수 161건을 기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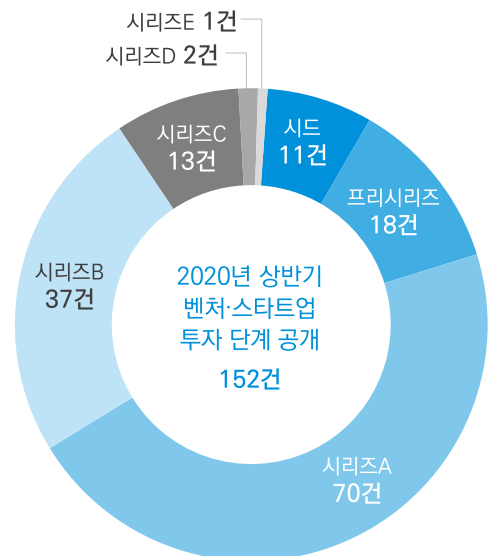
투자 금액이 공개된 161건 중 투자 단계가 알려진 투자 건수는 총 152건이었다. 이 중 시리즈A가 70건으로 거의 과반에 육박하는 46%의 비중을 차지했다. 시리즈B가 37건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프리시리즈는 18건으로 나타났다. 후기 투자 단계에 해당되는 시리즈C, D, E의 건수는 각각 13건, 2건, 1건으로 투자 회차가 거듭될수록 급격히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시리즈E 1건은 유니콘 가치에 거의 근접한 컬리에 대한 투자였으며, 시리즈D 투자 사례는 백패커(2012년 설립), 스타일슈어(2011년 설립) 2개 스타트업으로, 업력이 8~9년에 달하며 여러 차례의 투자를 통해 예비 유니콘으로 스케일업을 진행 중인 기업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2020년 상반기 국내 벤처스타트업 투자 규모 분포]



Source: 벤처스퀘어, Bloomberg, 삼정KPMG 경제연구원 분석

[2020년 상반기 국내 벤처·스타트업 투자 단계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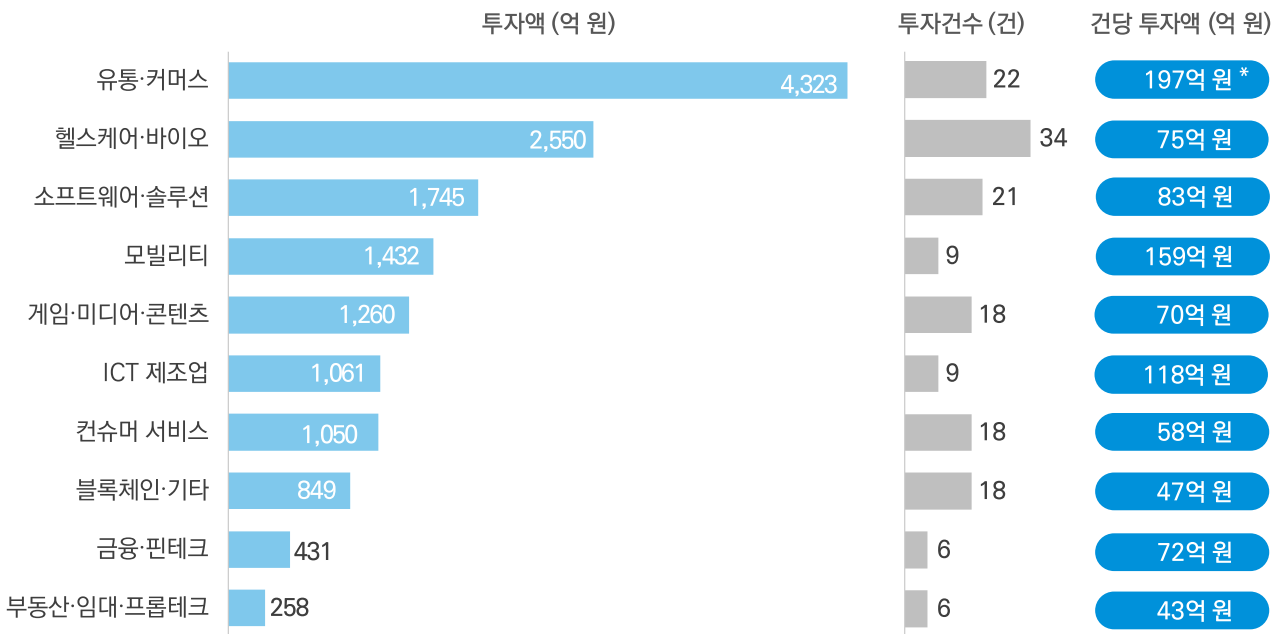
Source: 벤처스퀘어, Bloomberg, 삼정KPMG 경제연구원 분석

“
 분야별로는 유통·커머스가
 가장 많은 투자 금액을,
 헬스케어·바이오가 가장
 많은 투자 기업 수를 기록
 ”

유통·커머스, 헬스케어·바이오, 소프트웨어·솔루션, 모빌리티 등 10개 산업 분야별로 2020년 상반기 국내 투자 동향을 살펴보았다. 투자액 기준으로 가장 많은 투자금을 유치한 산업은 유통·커머스였으며, 헬스케어·바이오, 소프트웨어·솔루션, 모빌리티, 게임·미디어·콘텐츠가 그 뒤를 이었다. 다만, 유통·커머스에는 2,000억 원을 투자받은 컬리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제외할 경우 헬스케어·바이오가 가장 많은 투자액을 유치한 산업이 된다. 투자 유치 기업 수가 가장 많은 분야는 헬스케어·바이오였으며, 그 뒤를 이은 것은 유통·커머스, 소프트웨어·솔루션이었다. 건당 평균 투자액이 가장 높은 산업은 197억 원을 기록한 유통·커머스였으나, 대형 투자 사례인 컬리를 제외했을 때는 평균 투자액이 111억 원으로 줄어들며, 모빌리티(159억 원), ICT 제조업(118억 원)이 100억 원 이상의 평균 투자액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핀테크, 부동산·임대·프롭테크 분야는 투자 금액이 1,000억 원 아래였으며, 투자 기업 수도 각각 6개에 지나지 않아, 최근 부상 중인 유망 섹터라는 평가와는 달리 2020년 상반기에는 큰 투자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분야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0년 상반기 전체 벤처 투자 중 스마트헬스케어, 교육, 스마트비즈니스&금융, 생활소비, 엔터테인먼트, 물류·유통 등 비대면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년 동기 대비 5.4%p 증가해 46.6%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본 보고서의 10개 산업 분류 중에서도 유통·커머스, 헬스케어·바이오, 게임·미디어·콘텐츠, 컨슈머 서비스, 금융·핀테크가 비대면 분야에 해당하며,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및 동향 분석을 통해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한 비대면 산업의 투자 현황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0년 상반기 분야별 국내 벤처·스타트업 투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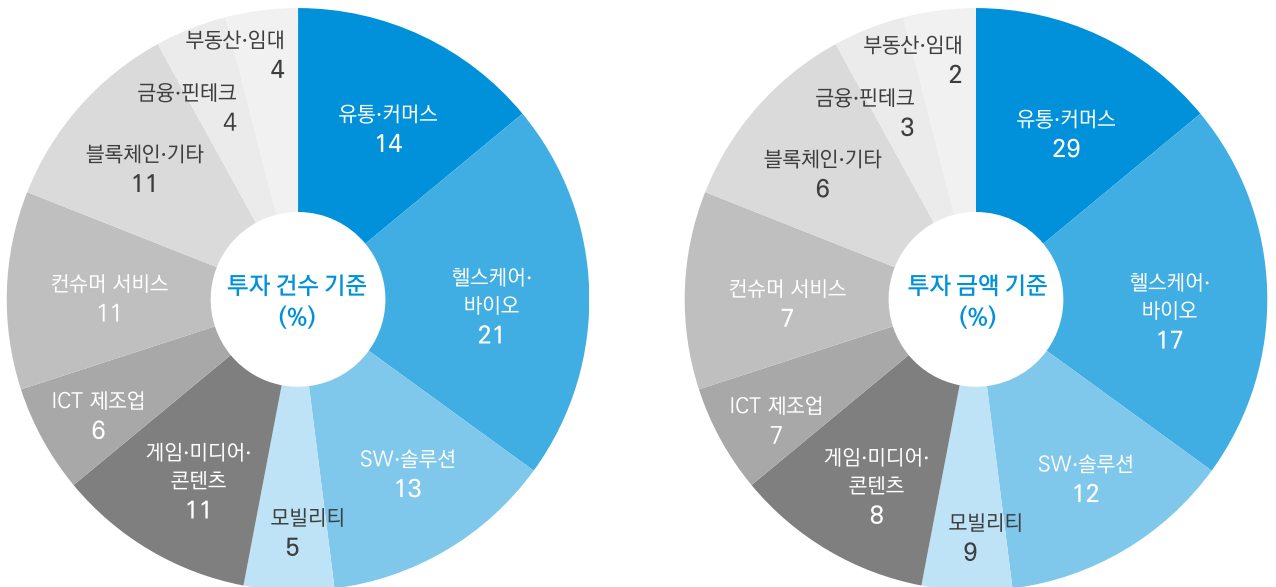
Source: 벤처스퀘어, Bloomberg, 삼정KPMG 경제연구원 분석
 Note: 유통·커머스 분야에서 컬리 제외 시 건당 평균 투자액은 111억 원

“
 유통·커머스는 투자 금액
 비중에 비해 투자 건수
 비중이 낮은 특징을 보임
 ”

투자 금액과 투자 건수의 비중을 비교해 본 결과, 두 비중에서 가장 많은 차이가 나는 분야는 유통·커머스와 모빌리티였다. 유통·커머스는 투자 금액 기준으로 29%를 차지했으나, 투자 건수는 14%에 그쳤다. 이는 컬리의 대규모 투자의 영향으로, 한 건의 대형 투자가 차이를 만들어낸 원인이 되었다. 모빌리티는 투자 금액 비중이 9%였으나, 투자 건수는 5%로 2배에 가까운 차이가 발생했는데, 이는 모빌리티 스타트업에 대한 높은 기업당 평균 투자 금액 때문으로 분석된다.

투자 금액 기준 상위 3개 분야인 유통·커머스, 헬스케어·바이오, 소프트웨어·솔루션의 합계 비중은 58%로 전체의 5분의 3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건수 기준 상위 3개 분야 또한 투자 금액 기준과 동일하나 합계 비중은 48%였으며, 투자 건수 기준 5개 분야가 각각 10~15% 사이의 비중으로 각 부문별 고른 양상을 보였다.

[2020년 상반기 국내 벤처·스타트업 투자 분야별 비중]



- ✓ 유통·커머스는 컬리의 대형 투자 유치로, 건수(14%) 대비 투자 금액(29%) 비중이 높음
- ✓ 모빌리티는 기업당 평균 투자 금액이 높아 투자 금액과 투자 건수 비중의 차이가 발생
- ✓ 투자 건수는 투자 금액 대비 각 부문별 비중이 고른 편

Source: 벤처스퀘어, Bloomberg,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분석

2020년 상반기 국내 벤처·스타트업 주요 투자 사례

300억 원 이상 대형 투자 사례

2020년 상반기 300억 원 이상 투자 받은 사례는 총 9건이었다. 신선식품 이커머스마켓컬리 운영사인 컬리가 2,000억 원을 투자받은 것을 필두로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가 이루어졌다. 9개 사례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이커머스가 3건으로 가장 많았고, ICT 제조업이 2건, 나머지 SW·솔루션, 모빌리티, 헬스케어, 게임이 각각 1건씩을 차지했다. 그 외 부동산·임대·프롭테크, 금융·핀테크, 블록체인·기타, 컨슈머 서비스 분야에서는 300억 원 이상 투자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9건 중 5건은 시리즈C 이상의 후기 단계 투자에 해당되며 시리즈A 투자는 베어로보틱스, 엔픽셀 2건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분야에 대한 선호는 대형 투자에도 반영되었다. 컬리를 비롯해 모바일 중고장터 번개마켓과 온라인 핸드메이드마켓 '아이디어스(idus)'의 운영사인 백패커까지 온라인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이커머스 기업이 3개나 포함된 것이 이를 반증한다. 또한 기업의 원격근무와 디지털 전환에 힘입어 수요가 크게 증가할 클라우드의 도입, 설계, 구축 및 관리·운영 사업을 영위하는 베스핀글로벌도 900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했다.

2018년 7월 설립되어 업력이 그리 길지 않은 에스엠랩은 2차전지 소재에 대한 높은 기술력을 인정받아 520억 원의 금액을 투자받았다. 2017년 5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설립된 베어로보틱스는 레스토랑에서 사용되는 서빙 로봇 '페니'를 개발해 370억 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를 유치했다. 페니는 주변의 장애물을 인식해 최적의 동선을 따라 움직이며, 한번 충전으로 200회 이상의 서빙이 가능하다. 국내 TGI프라이데이스, 미국 콤파스 등 대형 외식업체들이 페니를 도입하며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다. 300억 원의 시리즈A 투자를 유치한 게임 스타트업 엔픽셀은 모바일 RPG '세븐나이트' 제작 인력이 설립한 멀티플랫폼 MMORPG 개발사로, 핵심 개발진에 대한 신뢰와 평가가 투자 유치를 이끌어낸 것으로 분석된다.

“ 2020년 상반기 300억 원 이상 투자 사례는 총 9건으로 컬리가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 받음 ”

[2020년 상반기 국내 300억 이상 대형 투자 사례]

발표일	기업명	사업 내용	사업 분야	투자액(억 원)	투자 단계	투자자
5.8	컬리	신선식품 이커머스 '마켓컬리' 운영	이커머스	2,000	시리즈E	DST 글로벌, 힐하우스캐피탈, 세콰이어캐피탈 차이나, 퓨스벤처파트너, SK네트웍스, 트랜스링크캐피탈
5.29	베스핀글로벌	클라우드 관리 플랫폼	SW·솔루션	900	시리즈C	SK텔레콤차이나, 디와이홀딩스
3.19	번개장터	모바일 중고장터 운영	이커머스	560	시리즈C	BRV캐피탈매니지먼트, 베이스인베스트먼트-에스투엘파트너스, 미래셋벤처투자/캐피탈, 타임와이즈인베스트먼트
3.19	에스엠랩	2차전지 소재 (양극재) 개발	ICT 제조	520	시리즈B	한국투자파트너스, 스틱벤처스, DSC인베스트먼트, SV인베스트먼트, 뮤렉스파트너스
2.6	쏘카	차량공유	모빌리티	510	N/A	LB프라이빗에쿼티
1.23	베어로보틱스	자율주행 서비스 로봇	ICT 제조	370	시리즈A	소프트뱅크, 롯데액셀러레이터, 스마일게이터, DSC인베스트먼트
1.6	루닛	의료영상 AI 분석	헬스케어	300	시리즈C	레전드캐피탈, 인터베스트, IMM인베스트먼트, 카카오벤처스, 신한금융투자, NH투자증권, LG CNS
1.7	엔픽셀	멀티플랫폼 MMORPG 게임 개발	게임	300	시리즈A	알토스벤처스, 새한창업투자
6.8	백패커	온라인 핸드메이드마켓 '아이디어스' 운영	이커머스	300	시리즈D	알토스벤처스, 스톤브릿지벤처스, IMM인베스트먼트, 미래셋벤처투자/캐피탈, 글로벌브레인,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Source: 벤처스퀘어, Bloomberg,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분석

“ 2020년 상반기 AI, 제휴마케팅, 이커머스, 화상회의 기술 스타트업에 대한 M&A가 진행됨 ”

주요 M&A 사례

2020년 상반기에는 AI, 제휴마케팅, 이커머스, 화상회의 기술 등 여러 분야의 스타트업에 대한 M&A가 진행되었다. 이커머스 솔루션 기업인 코리아센터는 자회사 플레이오토를 통해 제휴마케팅 기업 링크프라이스의 주식 99.89%를 392억 원에 인수한다고 2020년 1월 발표했다. 코리아센터는 인터넷쇼핑몰 제작솔루션인 메이크샵과 해외 배송대행 서비스인 몰테일을 주력 사업으로 삼고 있으며, 이번 인수를 통해 키워드 광고와 제휴 마케팅 분야에서 자사 쇼핑몰 회원사 간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기업용 IT 시장에서 AI 기반 플랫폼과 솔루션을 개발하는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영상 전송 서비스 개발 스타트업인 리모트몬스터를 56억 원에 인수했다. 이 인수는 코로나19가 확산된 이후인 2020년 5월 이뤄져, 화상회의 등 비대면 서비스의 성장을 노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리모트몬스터는 영상을 트랜스코딩하지 않고 그대로 전송할 수 있는 웹RTC(Real Time Computing)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이 기술을 화상회의 서비스 등에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업용 채팅 API 개발사인 샌드버드가 화상회의 플랫폼 기업인 리니어허브를 인수한 사례 또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성장이 예상되는 화상회의 시장을 공략하려는 목적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AI 분야의 투자로는 네이버웹툰이 웹툰 제작에 AI 기술을 접목하려는 목적에서 컴퓨터 비전 AI 기술을 보유한 비닷두를 인수한 사례와 법률 AI 시장에 진출하려는 로앤컴퍼니가 언어 처리 AI 기술을 확보한 텍스트팩토리를 인수한 바와 같이 주로 서비스 기업이 AI 기술 스타트업을 인수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한편, 사모펀드인 프랙시스캐피탈은 2020년 1월 번개닷컴을 인수한 후 3월에는 560억 원 규모의 시리즈C 투자를 유치하며 경영권 확보와 자금 조달을 동시에 진행해 주목을 받았다. AI 패션 테크 기업인 오드컨셉은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에서 타깃 광고 사업을 영위하는 시클릭스를 인수하며, M&A를 통한 해외 시장 진출을 추진했다.

[2020년 상반기 국내 주요 벤처·스타트업 M&A 사례]

발표일	Target	Target 사업 분야	인수액(억 원)	Acquirer	Acquirer 사업분야	인수 목적
1.9	링크프라이스	제휴마케팅	393	플레이오토	쇼핑몰통합솔루션	사업 확장, 가입자 간 시너지 발휘
1.14	비닷두	컴퓨터 비전 AI	N/A	네이버웹툰	웹툰 플랫폼	웹툰 제작에 AI 접목
1.16	번개닷컴	중고 거래 장터	N/A	프랙시스캐피탈	사모펀드	경영권 확보, 재무적 투자
2.5	시클릭스	싱가포르 타깃 광고 업체	N/A	오드컨셉	AI 패션 스타일링 서비스	해외 시장 진출
2.26	칭찬비타민	모바일 소셜 쿠폰	40	아리온테크놀로지	셋톱박스, 이커머스	온라인 쇼핑몰에 쿠폰 접목
3.20	텍스트팩토리	AI 기술 기업	N/A	로앤컴퍼니	법률서비스	법률 AI 진출
4.28	리니어허브	화상회의 플랫폼	N/A	샌드버드	기업용 채팅API 개발	화상 기술 획득
5.25	리모트몬스터	웹 실시간 통신 기술	56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기업용 플랫폼	신규 사업 확대

Source: 벤처스퀘어, Bloomberg,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분석

“ SK텔레콤, 현대차, 네이버 등의 국내 대기업이 클라우드, 모빌리티, 물류 스타트업에 대해 전략적 투자를 진행 ”

전략적 투자(SI) 사례

2020년 상반기 국내 대기업인 SK텔레콤, 현대자동차, 네이버 등은 각각 클라우드 솔루션, 모빌리티, 물류 스타트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진행했다. SK텔레콤은 자회사인 SK텔레콤차이나를 통해 클라우드 관리 플랫폼 스타트업인 베스핀글로벌에 비와이홀딩스 등 재무적 투자자와 함께 9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다. 현대자동차는 브랜드택시 ‘마카롱택시’를 운영하는 KST모빌리티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통해 여러 승객의 출발지·목적지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최적 경로로 승객을 태우며 운영하는 수요응답형 이동 서비스 사업을 함께 준비하고 있다. 네이버는 자사의 이커머스 플랫폼인 스마트 스토어 사업을 확대하면서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자들에게 물류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물류 스타트업인 위킵, FSS, 두손컴퍼니 등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진행한 바 있다.

미국 자동차 제조사인 포드는 실리콘밸리 기반의 자율주행 솔루션 및 ADAS(첨단 운전자 보조시스템) 개발 기업인 팬텀SI에 대해 273억 원 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발표했다. 팬텀SI는 테슬라, 현대자동차 출신의 기술 전문가가 실리콘밸리에서 창업했으며, 현재 ADAS를 양산 중이며 4단계 자율주행 솔루션을 개발 중이다. 아직 본격적으로 시장이 확립되지 않은 자율주행 기술과는 달리 ADAS 시장은 현재 약 300억 달러 수준에서 2027년경에는 약 1,349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어 있다는 것이 차별점이다. 핑크퐁과 상어가족 등 유아용 모바일 앱 및 콘텐츠 제작업체인 스마트스터디는 2019년 7월 설립한 자회사인 창업투자사 스마트스터디벤처스와 함께 2D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인 레드독컬처하우스에 100억 원의 전략적 투자를 진행했다. 스마트스터디는 자사의 IP를 장편 애니메이션, 웹툰, 게임 등으로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이번 투자를 통해 레드독컬처하우스와 함께 2D 애니메이션 공동 제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상반기 국내 벤처·스타트업 전략적 투자(SI) 사례]

SI	사업분야 투자 스타트업	발표일자 투자 규모(억 원)	전략적 투자 목적
SK텔레콤 (SK텔레콤 차이나)	클라우드 베스핀글로벌	5.29 900 (SI+FI 총합)	SK텔레콤은 베스핀글로벌이 보유한 클라우드 관리 플랫폼 ‘옵스나우’에 SK C&C, SK 인포섹의 기술을 결합, 5G 클라우드까지 연동되는 멀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관리 플랫폼을 공동 개발한다는 계획
포드	자율주행 팬텀SI	4.2 273 (SI+FI)	팬텀SI는 2-3단계 첨단 운전자 보조시스템(ADAS)을 양산 중이며, 4단계 자율주행 솔루션을 개발 중인 모빌리티 스타트업으로, 팬텀SI의 ADAS 기술은 포드 등 완성차 기업 출시 신차에 적용 가능
NHN 현대자동차	모빌리티 KST모빌리티	4.2 50 (NHN) 50 (현대차)	마카롱택시에 NHN 간편결제 시스템 ‘페이코(PAYCO)’를 도입하고, 다양한 사용자맞춤 서비스, 통합 예약 서비스 등 공동 개발 검토 현대자동차와는 AI 기반으로 다수 승객의 출발지/목적지를 실시간으로 최적 경로 설계하며 운영하는 수요응답형 이동 서비스 사업 준비 중
스마트스터디	콘텐츠 레드독 컬처하우스	6.10 100	레드독컬처하우스는 글로벌 프로젝트에 참여해 성과를 내고 있는 2D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로, 스마트스터디와 장편 애니메이션, 웹툰, 게임 제작을 통해 유튜브, 글로벌 OTT로 사업 확장 계획
네이버	물류 위킵, FSS 두손컴퍼니	3~5월 위킵 55 (SI+FI) 두손 64 (SI+FI)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입점 판매자들과 투자한 물류 풀필먼트 업체를 연결, 판매자에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판매망을, 물류 업체에게는 사업 확대의 기회 제공

Source: 벤처스퀘어, Bloomberg,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분석

사모펀드(PE) 투자 사례

2020년 상반기 국내 사모펀드의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주요 투자 중 가장 주목되는 사례는 프랙시스캐피탈의 번개장터 인수이다. 프랙시스캐피탈은 2020년 1월 번개장터 창업자 보유 지분과 기존 VC투자자의 구주를 매입해 경영권을 인수 후 신임 대표이사를 선임했다. 이후 3월에는 번개장터의 성장을 위한 자금 확보를 위해 BRV캐피탈매니지먼트 등 신규 VC 투자자로부터 560억 원 규모의 시리즈C 투자를 유치했다. 번개닷컴은 개인이 한정판 스니커즈와 같이 희소가치가 높은 상품을 되파는 형태의 리셀을 최근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고객경험(UI, UX) 개선에도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공유차량 서비스 기업인 쏘카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LB프라이빗에쿼티 등 국내 PE 투자자로부터 총 51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발표했다. 쏘카는 크게 카셰어링과 타다 브랜드의 라이드셰어링으로 이원화된 사업구조를 갖고 있었으나, 법적 규제로 사업이 어려워진 타다 사업부문을 분할한다는 계획 아래 PE로부터의 투자 유치를 진행했다. 그러나 2020년 3월에는 국내 사업 추진이 힘들어진 타다 사업의 분할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한편, 큐캐피탈파트너스는 국내 스크린 골프 시장에서 2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카카오 자회사 카카오VX에 투자를 단행했다. 카카오VX는 스크린골프 사업과 함께 VR, AR 기반의 홀트레이닝 서비스를 론칭하는 등 가상현실 경험을 스포츠에 접목하는 스포테크 전문 회사로서의 사업 다각화를 추진 중이다.

포레스트파트너스는 전 세계의 농식품 공급자를 월마트, 롯데마트 등 해외와 국내의 대형 마트와 연결해주는 B2B 디지털 무역거래 플랫폼을 제공하는 트릿지에 103억 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했다. 에스지프라이빗에쿼티는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국내 케이팝그룹 방탄소년단을 소재로 한 'BTS월드' 게임을 개발한 테이크원컴퍼니에 투자했다. 테이크원컴퍼니는 영상 스토리텔링과 게임을 결합한 시네마틱 게임을 개발했으며, 게임뿐만 아니라 드라마, 웹툰 등 오리지널 IP 기획과 개발에도 나서고 있다.

“
국내 PE는 VC와 함께
스타트업에 대한 다양한
투자를 진행 중
”

[2020년 상반기 국내 PE의 벤처·스타트업 투자 사례]

PE	사업분야	발표일자	투자 목적
	투자 스타트업	투자 규모 (억 원)	
프랙시스캐피탈	이커머스 번개장터 매출 75억 원/영업이익 21억 원(FY18)	1.16 1200(추정, 구주매입가)	번개장터 창업자와 기존 VC투자자 지분 매입으로 경영권 인수 후 신임 대표이사 선임, 이후 '20년 3월 19일 560억 원의 시리즈C VC투자 유치로 기술인력 투자, 리셀 마케팅, 슈퍼셀러 양성 등에 집중 계획
LB프라이빗에쿼티	차량공유 쏘카 2567억 원/-716억 원(FY19)	2.6 510	'19년 12월부터 '20년 2월까지 LB프라이빗에쿼티 등 국내 PE 투자자로부터 총 51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
큐캐피탈파트너스	모빌리티 카카오VX 408억 원/-44억 원(FY19)	2.10 200	가상현실(VR) 기반 콘텐츠 시장의 성장 잠재력에 주목해 투자를 단행, 카카오VX는 골프존에 이어 국내 2위의 스크린 골프 시장 점유율을 확보
포레스트파트너스	이커머스 트릿지 매출/영업이익 비공개	2.11 103	트릿지는 전 세계 농식품 상품에 대한 디지털 무역거래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 195개국 6만 명의 농식품 공급자를 월마트, 켈로그, 롯데마트 등 수요자와 연결시켜주는 사업 진행
에스지프라이빗에쿼티	게임 테이크원컴퍼니 102억 원/10억 원(FY19)	4.1 120 (SI/FI 총합)	테이크원컴퍼니는 영상 스토리텔링과 게임을 결합한 시네마틱 게임 장르를 개발하는 스타트업으로, 2019년 방탄소년단을 소재로 한 'BTS월드' 게임을 글로벌 시장에 출시

Source: 벤처스퀘어, Bloomberg,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분석

각 분야별 2020년 상반기 국내 벤처·스타트업 투자 트렌드

유통·커머스 / 헬스케어·바이오

유통·커머스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비대면 선호 트렌드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은 분야 중 하나다. 2020년 5월 2,0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한 컬리는 이번 투자 시점에서의 밸류에이션 금액이 9,000억 원 중반으로 유니콘 등극을 눈 앞에 둔 상황이다. 특히 컬리는 ‘질 좋은 식품 큐레이션’과 ‘새벽 배송’으로 대표되는 경쟁력을 앞세워 코로나19로 인해 소비자들의 신선식품 이커머스 주문이 크게 늘어나는 추세에 잘 대응한 것이 성공의 비결로 분석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침체되는 경제 상황에서 중고품 거래가 활발해지는 경향이 두드러짐에 따라, 번개장터(모바일 중고마켓) 등 중고 거래 플랫폼에 대한 대형 투자가 이뤄졌으며, 백패커(온라인 핸드메이드마켓), 스타일쉐어(쇼퍼블 커머스) 등이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한편, 트릿지(글로벌 농식품 무역중개), 패브릭타임(동대문 원단 수출 온라인 플랫폼), 딜리셔스(동대문 패션 B2B 플랫폼) 등 B2B 시장을 대상으로 한 스타트업이 부상하고 있다는 것도 또 다른 특징이다.

헬스케어·바이오 분야에서 투자를 유치한 기업들은 크게 신약·치료제를 개발하거나 연구하는 스타트업과, 의료 진단 AI,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등 헬스케어 서비스 업체로 구분된다. 최근에는 뇌파, 의료 영상,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의료 진단 AI 기업이 부상하고 있으며, 흉부 X선, 유방촬영 영상을 머신러닝 기술로 분석해 병을 진단하는 루닛은 2020년 1월 300억 원 규모의 시리즈C 투자를 유치해 눈길을 끌었다. 와이브레인(뇌질환 전자약), 뉴아인(안과 전자약) 등 신체에 미세한 전류를 흘려보내 치료 효과를 유도하는 전자약 개발 스타트업도 주목된다. 미용의료 정보 플랫폼에 대한 투자도 늘어나고 있어, 향후 유망성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힐링페이퍼는 중동 의료관광객을 국내 병·의원과 연계해주는 새로운 사업모델을 선보이며, 2020년 4월 185억 원의 시리즈B 투자를 유치한 바 있다.

“ 유통·커머스는 비대면 선호에 힘입어 수혜를 받았으며, 헬스케어·바이오는 신약/치료제 개발 및 헬스케어 서비스 업체로 구분 ”

[2020년 상반기 국내 유통·커머스 분야 주요 투자 리스트]

발표	기업명	세부 사업 내용	투자액 (억 원)	투자 단계
5월	컬리	이커머스	2,000	시리즈E
3월	번개장터	모바일 중고마켓	560	시리즈C
6월	백패커	온라인 핸드메이드마켓 운영	300	시리즈D
1월	스타일쉐어	쇼퍼블 콘텐츠	250	시리즈D
3월	브랜드	패션 쇼핑앱	210	시리즈C
1월	디홀릭커머스	일본 온라인 패션 커머스	160	시리즈A
4월	마켓보로	SaaS 기반 유통 관리 서비스	150	시리즈B
2월	트릿지	온라인 글로벌 무역중개 플랫폼	130	시리즈C
5월	와이엘피	미들마일 물류 플랫폼	92	시리즈B
6월	더맘마	동네마트 O2O 플랫폼	75	시리즈A
4월	패브릭타임	동대문 원단 수출 온라인 플랫폼	70	시리즈B
3월	딜리셔스	동대문 패션 B2B 플랫폼	70	시리즈B
3월	위킵	스마트 물류	55	시리즈A

[2020년 상반기 국내 헬스케어·바이오 분야 주요 투자 리스트]

발표	기업명	세부 사업 내용	투자액 (억 원)	투자 단계
1월	루닛	의료AI	300	시리즈C
4월	오토텍바이오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제 개발	200	시리즈B
4월	힐링페이퍼	미용의료 정보 플랫폼	185	시리즈B
4월	아밀로이드솔루션	알츠하이머 치료제 신약개발	180	시리즈B
5월	유빅스테라퓨틱스	혈액암 치료제 개발	150	시리즈B
6월	퍼스트바이오	퇴행성 뇌질환 신약개발	150	시리즈C
6월	진캐스트	암 진단 키트	143	시리즈B
2월	파로스아이비티	급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개발	130	시리즈B
3월	딥바이오	전립선암 AI 진단	120	시리즈B
1월	에이아이트릭스	의료 AI	80	시리즈A
2월	세레스에프엔디	항생제 및 면역억제제 생산	80	시리즈B
4월	바이오옴	식품기반 의약품 개발사	75	시리즈C
4월	넥스트앤바이오	바이오 의약품	65	시리즈A
2월	와이브레인	뇌질환 전자약 플랫폼	64	시리즈C
4월	하이메디	헬스케어	60	시리즈B

Source: 벤처스퀘어, Bloomberg,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분석

“ SW·솔루션 분야에서는 클라우드, 보안, AI, 데이터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진행, 모빌리티는 자율주행 기술 및 모빌리티 플랫폼 스타트업이 투자 유치 ”

SW·솔루션 / 모빌리티

소프트웨어(SW)·솔루션 분야에서는 클라우드(베스핀글로벌), 보안(시큐레터, 에스투더블유업), 데이터(딥핑소스) 등 전통적인 SW·솔루션 사업 분야의 스타트업이 투자를 유치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원격근무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기업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클라우드 기업인 베스핀글로벌이 900억 원 규모의 대형 투자를 유치했다. 정부의 디지털, 그린 뉴딜 정책 추진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비식별화하거나 AI 활용을 위해 전처리하는 사업이 유망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개인정보 데이터 비식별화 기술을 보유한 딥핑소스는 55억 원의 시리즈A 투자를 유치했다. 또한 등교 중단 및 축소에 따른 온라인 교육 확대로 교육 현장에서 AI 성우를 활용한 교육 영상 제작이 활발해지고 있다. 코로나19 본격 확산 이전인 2020년 2월에 진행되기는 했지만, AI 성우 서비스인 타입캐스트를 운영하는 네오사피엔스도 50억 원의 시리즈A 투자를 유치하는 등 일찍이 유망함을 인정받았다.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쓰카가 51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 것을 필두로 주로 자율주행 솔루션 기술, 자율주행 센서, 모빌리티 플랫폼 분야 스타트업에 대한 시리즈A 및 프리시리즈 투자가 주로 이루어졌다. ADAS(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자율주행 기술 스타트업 팬텀시가 273억 원의 시리즈A 투자를 유치했으며, 라이다(Lidar), 카메라 센서를 이용한 자율주행 솔루션을 개발 중인 토르드라이브가 프리시리즈임에도 84억 원의 투자를 유치해 주목받았다. 비트센싱, 서울로보틱스와 같이 자율주행 기술 구현에 필요한 레이더 및 라이다 센서를 개발하는 기업도 투자를 받았다. 150억 원의 시리즈A 투자를 유치한 코드42는 드론, 자율주행차, 딜리버리 로봇을 음식 배달, 물류, 라이드셰어링 등의 용도로 통합해 서비스하는 도심형 모빌리티 플랫폼을 개발 중이며, 같은 방향 승객들의 자발적 동승을 증대하는 ‘반반택시’ 서비스 운영사인 코나투스 35억 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를 받았다.

[2020년 상반기 국내 SW·솔루션 분야 주요 투자 리스트]

발표	기업명	세부 사업 분야	투자액 (억 원)	투자 단계
5월	베스핀글로벌	클라우드 관리 플랫폼	900	시리즈C
6월	비프컴퍼니	축구 분석 플랫폼	120	시리즈C
3월	시큐레터	보안 솔루션	96	시리즈B
2월	스튜디오씨드코리아	디자이너 소프트웨어	75	시리즈B
3월	오드컨셉	AI 패션테크	60	시리즈B
5월	게임베리	애드테크	60	시리즈A
1월	딥핑소스	AI 데이터 개인정보 비식별화	55	시리즈A
3월	조이코퍼레이션	온라인 비즈메신저	50	시리즈C
2월	네오사피엔스	인공지능 성우 서비스	50	시리즈A
3월	에스투더블유업	사이버 보안 분석 솔루션	35	시리즈A
3월	테이블매니저	레스토랑 고객 관리 솔루션	35	시리즈A

[2020년 상반기 국내 모빌리티 분야 주요 투자 리스트]

발표	기업명	세부 사업 분야	투자액 (억 원)	투자 단계
2월	쓰카	모빌리티	510	N/A
4월	팬텀AI	ADAS, 자율주행 기술	273	시리즈A
1월	KST모빌리티	마카롱 택시 운영	210	시리즈A
6월	코드42	도심형 모빌리티 플랫폼	150	시리즈A
4월	토르드라이브	자율주행 기술	84	프리시리즈
6월	비트센싱	자율주행 레이더 센서	70	프리시리즈
4월	서울로보틱스	라이다 센서 개발	65	시리즈A
4월	코나투스	택시 라이드셰어링	35	시리즈A
5월	엠블	모빌리티 블록체인	35	시리즈A

Source: 벤처스퀘어, Bloomberg,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분석

“
 게임, 미디어, 콘텐츠
 분야는 코로나19로 이용
 시간이 늘어났으며, ICT
 제조업은 센서, 로봇을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짐
 ”

게임·미디어·콘텐츠 / ICT 제조업

게임·미디어·콘텐츠는 코로나19 시대에 사람들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이용 빈도와 시간이 모두 늘어났다. 이에 따라 게임·미디어·콘텐츠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성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분야의 주요 투자 유치 기업은 게임, 오디오북, VR 콘텐츠,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다. 엔픽셀은 PC, 모바일, 콘솔 등 다양한 기기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멀티플랫폼 MMORPG를 개발하고 있는 게임 업체로, 시리즈A 투자에서 3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엔픽셀은 한국, 대만, 동남아 지역에서 모바일 게임 매출 1위를 거둔 모바일 RPG ‘세븐나이츠’를 제작한 핵심 인력이 설립한 것으로 알려져, 개발진에 대한 기존의 신뢰가 대형 투자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방탄소년단을 IP로 활용한 ‘BTS월드’ 개발사 테이크원컴퍼니와 사전테스트(CBT)나 오픈베타서비스(OBT)에서 흥행하지 못한 게임을 보완해 재배급하는 ‘게임 업사이클’이라는 새로운 사업 모델을 선보인 코인게임즈에 투자가 진행되었다. 한편, 원이멀스(VR게임), 어메이즈VR(VR영상·콘서트) 등 비대면 트렌드로 부상하는 VR 분야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도서 출판 사업을 오디오콘텐츠로 확장하고 있는 인플루엔셜도 135억 원 규모의 시리즈B 투자를 유치했다.

2차 전지 소재에서 자율주행 서비스 로봇, 초저지연 영상전송 솔루션까지 다양한 ICT 기반의 제조업 기업들도 투자를 유치했다. 최근 테슬라를 필두로 한 전기차 열풍에 힘입어 2차 전지 소재 기업(에스엠랩)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으며, 식당서빙용 자율주행 서비스 로봇 ‘페니’를 선보인 실리콘밸리 기반의 베어로보틱스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트렌드에 부합하는 사업 모델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 LG유플러스는 5G 초저지연 영상전송 기술을 보유한 쿠오핀에 전략적 투자를 진행했으며, 향후 5G 고도화에 따라 관련 스타트업에 대한 추가 투자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20년 상반기 국내 게임·미디어·콘텐츠 분야 주요 투자 리스트]

발표	기업명	세부 사업 분야	투자액 (억 원)	투자 단계
1월	엔픽셀	게임	300	시리즈A
4월	인플루엔셜	오디오북	135	시리즈B
4월	테이크원컴퍼니	시네마틱 게임	120	시리즈C
3월	원이멀스	VR 게임 개발	100	시리즈C
6월	레드독컬처하우스	2D 애니메이션 제작사	100	시리즈A
6월	브레인콘텐츠	콘텐츠 비즈니스	100	N/A
2월	라이프엠엠오	게임	75	N/A
1월	마켓잇	인플루언서 마케팅 플랫폼	50	시리즈B
1월	에이퍼인터랙티브	3D 콘텐츠 제작	50	시리즈A
6월	뮤즈라이브	차세대CD스마트앨범	50	시리즈B
6월	코핀커뮤니케이션즈	종합 콘텐츠기업	32	시리즈A
1월	수퍼트리	블록체인 게임 개발	30	시리즈A
3월	코인게임즈	게임 업사이클	30	시리즈A
1월	어메이즈VR	VR콘텐츠 제작	29	시리즈A

[2020년 상반기 국내 ICT 제조업 분야 주요 투자 리스트]

발표	기업명	세부 사업 분야	투자액 (억 원)	투자 단계
5월	에스엠랩	2차 전지 소재 제조	520	시리즈B
1월	베어로보틱스	자율주행 서비스 로봇	370	시리즈A
4월	링크플로우	웨어러블 360도 카메라	72	시리즈B
2월	쿠오핀	초저지연 영상전송 솔루션	35	N/A
3월	더웨이브톡	박테리아 검출 센싱	26	시리즈B
2월	디딤센서	머신비전 센서 개발	15	프리시리즈
6월	알세미	반도체 설계자동화	10	시드
6월	나노게이트	첨단 나노 센서 개발	10	시드

Source: 벤처스퀘어, Bloomberg,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분석

“ 금융과 부동산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핀테크, 프롭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컨슈머 서비스는 다양한 사업 모델을 보유한 것이 특징 ”

핀테크·프롭테크 / 컨슈머 서비스

금융과 부동산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응용하는 핀테크, 프롭테크 분야에서는 디지털 자산관리, 인슈어테크, 음악 저작권 P2P 금융, AI 프롭테크, 인테리어 물류 프롭테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스타트업이 투자를 유치했다. AI 로보어드바이저를 이용해 투자자에게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추천 및 운영해주는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파운트는 150억 원 규모의 시리즈B 투자를 받았다. 스페이스워크는 AI 건축설계 기술과 솔루션을 개발해 토지면적 200평 이하의 소형 부동산에 대해 최적의 개발안을 만들어내는 ‘랜드북’ 서비스를 개시했으며, 80억 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를 유치했다. 뮤직카우는 음악 저작권 P2P 금융이라는 새로운 사업 모델을 선보여 주목을 받았다. 가수들로부터 저작권 일부를 양도받아 가입 회원이 경매를 통해 저작권을 구매하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저작권 수익을 얻고 또 저작권을 다른 회원에게 매각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컨슈머 서비스에서는 모바일 O2O 세탁소(런드리고), 아이돌봄 매칭(짜깍악어), 피트니스 테크(짐티), 모바일 운세(포스탈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업 모델이 등장했다. 국내 스크린골프 시장에서 2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카카오VX는 2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모바일 앱으로 물빨래와 드라이클리닝 등을 신청하고 전용 수거함에 세탁물을 내놓으면 하루만에 서비스를 마치고 배송해주는 모바일 O2O 세탁 서비스 ‘런드리고’를 운영하는 의식주컴퍼니가 170억 원의 시리즈B 투자를 받았다. 짜깍악어는 아이돌봄 교사와 육아가 필요한 가정을 매칭해주는 서비스로, 교사에 대한 신뢰성과 효율적인 매칭을 강점으로 63억 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한편, 코로나19로 급부상한 비대면 온라인 교육에 따라 에듀테크(에누마), 코딩교육(럭스로보, 코드잇) 등 교육 스타트업에 투자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실리콘밸리 기반의 에듀테크 스타트업 에누마는 교육에 게임을 결합한 게이미피케이션(Gamification) 교육 애플리케이션 ‘토도수학’, ‘토도영어’를 선보여 주목을 받았다.

[2020년 상반기 국내 핀테크·프롭테크 분야 주요 투자 리스트]

발표	기업명	세부 사업 분야	투자액 (억 원)	투자 단계
5월	파운트	디지털 자산관리 플랫폼	150	시리즈B
1월	보맵	인슈어테크	85	시리즈B
1월	스페이스워크	AI 프롭테크	80	시리즈A
4월	뮤직카우	음악 저작권 P2P 금융	80	시리즈B
2월	H2O 호스피탈리티	일본 호텔 운영	70	시리즈B
1월	편다	소상공인 전문 P2P 금융	66	시리즈B
3월	하우저	인테리어 물류 프롭테크	55	시리즈A
3월	스팬딩	B2B 핀테크	30	시리즈A
2월	에이치온티	공유주방	23	시리즈A
1월	가치공간	리테일 공유 팝업 플랫폼	20	시리즈A
4월	해빗팩토리	인슈어테크	20	시리즈A
6월	데이터노우즈	AI 부동산 평가	10	프리시리즈

[2020년 상반기 국내 컨슈머 서비스 분야 주요 투자 리스트]

발표	기업명	세부 사업 분야	투자액 (억 원)	투자 단계
2월	카카오VX	스크린골프	200	N/A
6월	의식주컴퍼니	모바일 O2O 세탁소	170	시리즈B
5월	에누마	에듀테크	110	시리즈B
2월	럭스로보	코딩전문교육	90	시리즈B
5월	그린랩스	스마트팜 통합 서비스	65	시리즈A
3월	짜깍악어	아이돌봄 모바일 앱	63	시리즈A
6월	성보팻헬스케어	반려동물 사료 제조	60	시리즈A
3월	짐티	피트니스 테크	40	시리즈A
4월	코드잇	온라인 코딩 스쿨	40	시리즈A
4월	마이세프	프리미엄 밀키트	40	시리즈A
4월	캐치테이블	실시간 레스토랑 예약 플랫폼	35	시리즈A
1월	트립비토즈	온라인 여행 플랫폼	33	시리즈A
3월	포스탈러	모바일 운세 서비스	30	시리즈B
4월	꾸까	플라워테크	30	시리즈B

Source: 벤처스퀘어, Bloomberg, 언론보도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분석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유망 투자 분야와 투자 전략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유망 투자 분야는?

포스트 코로나, 또는 코로나19와 당분간 함께 갈 수 밖에 없는 위드(with) 코로나시대, 유망 투자 분야는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 여기서는 최근 부상하는 이머징 기술(Emerging Technology)과 유망 스타트업 산업 분야(Rising Sector)를 조합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KPMG 글로벌에서는 미래 사회와 기업, 비즈니스에 큰 영향을 미칠 이머징 기술을 선정하고 있다. AI(인공지능)와 D&A(Data&Analytics)는 그 중에서도 가장 파급력이 크고 여러 분야를 혁신할 기술로 전망되고 있다. 이들은 이미 기존의 디지털 플랫폼, 소프트웨어·솔루션 등 기술의 중요성이 높은 산업뿐만 아니라 유통, 헬스케어, 모빌리티, 컨슈머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기술 중심 산업이 아닌 분야에도 기반 기술로 활용되고 있다. 앞으로도 AI, D&A는 소위 GPT(General Purpose Technology, 범용기술)로서 그 파급력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최근 부상하고 있는 차세대 이동통신인 5G는 IoT, AI, D&A 기술과 함께 발전하며 커뮤니케이션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또한 코로나 19로 인한 원격근무, 비대면 업무 활성화로 VR·AR이나 자동화(Automation), 협업 기술(Collaborative Technology)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유망 투자 분석을 위해 이머징 기술과 유망 산업 분야를 조합해 제시

”

이머징 기술은 하나의 기술이 독립적으로 사용되기보다는 융·복합적으로 활용되거나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AI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현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수집하는 IoT나 데이터 분석에 이용되는 D&A 기술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으며, 이러한 기술들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는 VR·AR은 협업 기술과 함께 활용될 경우 현장감과 상호작용성을 높이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부상하는 유망 섹터를 각 세부 산업별로 도출해 보았다. 유통·커머스에서는 비대면 유통 서비스인 이커머스 분야가 가장 각광받고 있으며, 이커머스의 인프라 역할을 수행하는 물류 플랫폼 스타트업도 함께 발전하고 있다. 또한 이커머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차별화된 상품을 선정하고 소비자에게 추천할 수 있는 큐레이션이나 콘텐츠의 재미와 쇼핑의 즐거움이 결합된 쇼퍼블 서비스도 부상하고 있다. 헬스케어·바이오에서는 AI 진단과 비대면 트렌드에 적합한 홈트레이닝, 미용기술 정보 서비스 등이 유망하게 여겨지고 있다.

SW·솔루션 분야에서는 원격근무와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클라우드 사업과 정부의 디지털 뉴딜 분야로 기회가 확대될 데이터 관련 사업도 주목된다. 원격교육 콘텐츠 및 유튜브 영상 제작 등에 활용되는 음성 기술 또한 최근 유망한 분야 중 하나이며, 재택근무의 확대로 원격근무 솔루션에도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모빌리티에서는 도심형 자율주행 차량과 차량 공유, 킥보드와 같은 라스트마일 이동 수단을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모빌리티 플랫폼이나 탑승객의 동선에 최적화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도 각광받고 있다. 자율주행 기술의 고도화와 실제 구현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는 자율주행 센서와 솔루션 기술에 대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유망 산업 분야에 적용되는 기술적 차별성에 의해 스타트업의 경쟁력이 결정됨 ”

게임은 코로나19로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분야다. PC, 모바일, 콘솔게임기 등을 자유롭게 오가며 즐길 수 있는 멀티플랫폼 게임과 함께, 최근 5G 도입으로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클라우드 게임 분야가 유망하게 꼽히고 있다. 또한 방탄소년단을 소재로 한 ‘BTS월드’ 게임과 같이 확실한 IP를 바탕으로 한 게임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으로 대표되는 게임 사업의 낮은 성공 확률을 높여주고 사업의 안정성을 담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미디어·콘텐츠 분야에서는 넷플릭스 효과로 OTT로의 전환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숏폼 동영상이 새로운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실제 공연 관람이나 여행이 힘들어진 상황에서 VR·AR 콘텐츠의 매력도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집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간단히 즐길 수 있는 웹툰의 성장세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진출하고 있는 K-드라마의 강점에 힘입어 드라마 제작 분야에 대한 투자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컨슈머 서비스 분야에서는 매우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중 가장 유망한 것은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와 교육이다. 특히 교육은 코로나19로 학교 및 학원 등교에 차질이 생기면서 비대면·원격교육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각광받고 있으며, 비대면 교육 플랫폼과 에듀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핀테크 분야에서는 기존의 자산관리 서비스와 함께, 일반 소비자 대상이 아닌 B2B 분야의 핀테크 서비스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프롭테크 분야에서는 최근 인테리어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트렌드를 반영해 인테리어 서비스 및 정보 플랫폼이 주목된다. 그 외 법률, 세무, 회계와 같은 전문 서비스 분야에 AI 기술이나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는 스타트업도 주목받고 있다.

[이머징 기술과 유망 산업 분야]



Source: 삼성KPMG 경제연구원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효과적인 투자 전략으로
 비대면 서비스 및 확실한
 수익모델 주목
 ”

포스트 코로나 시대, 효과적인 투자 전략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투자 전략의 변화가 요구된다. 포스트 & 위드 코로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투자 전략을 비대면 서비스, ROI, AI 및 D&A, 글로벌 트렌드 및 정책 흐름의 측면에서 제언했다.

①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투자 주목

비대면 서비스는 코로나19로 가장 큰 특수를 누리고 있는 분야이다. 쇼핑의 비대면화를 주도하는 이커머스의 확대는 필연적인 흐름으로 앞으로도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2020년 상반기 국내에서 가장 높은 투자 금액을 유치한 분야 또한 이커머스이며, 여전히 계속해서 주시해야 할 분야로 여겨지고 있다. 다만, 이커머스의 확대는 기업 간 더 높은 경쟁 환경을 유발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이커머스의 경쟁력을 좌우할 물류 인프라나 핵심 사업 역량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비대면 교육에서는 중국의 다양한 에듀테크 서비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미 AI 기술에서는 중국이 한국을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교육열이 높은 중국에서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AI 기반 에듀테크 서비스가 국내 스타트업에게는 선례가 될 수 있다. 식당·소매점의 무인주문 플랫폼이나 키오스크, 서빙 로봇과 같은 비대면 고객 응대 기술도 부상할 것으로 점쳐진다.

② 투자를 포스트 코로나 신성장동력 확보 기회로 활용

코로나19는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지형도를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V자형 경제 회복이 기대되었으나, 이제는 U자형 회복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장기적인 경기 침체는 피할 수 없는 상수로 예견되고 있다. 예기치 않은 코로나19 사태 발발로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또한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 위축과 기업 수익성 악화로 단기적인 자금난과 재무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사업 전망이 유망한 이른바 알짜 매물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모험자본인 벤처·스타트업 투자 업계에서 보다 장기적 관점의 적극적 투자를 통해 벤처·스타트업 시장의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또한 기존 기업들은 투자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기 새로운 성장모형을 찾고 신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전략적인 시장 참여가 필요하다.

③ 다양한 업종에서 AI, D&A 기반 스타트업 부상에 주목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제 AI, D&A는 모든 산업 분야에 기본적으로 이용되는 범용 기술(GPT)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각광받고 투자를 유치하는 스타트업 가운데 AI, 데이터 관련 기술을 내세우지 않는 곳이 거의 없을 정도이다. 그러나 기술을 내세우는 모든 스타트업이 AI, 데이터 기술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해당 사업 분야에 AI, 데이터 기술이 필수불가결한 요소인가와 같은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말로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스타트업에 대한 기술 및 경쟁력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지만, 아직 기술 개발과 사업 모델이 구체화되지 않은 스타트업에 대해 정밀하고 효과적인 평가가 어렵다는 문제도 함께 존재한다.

“ AI, D&A 기술 경쟁력에 대한 판단과 함께 전 세계적 추세와 국내 정책 흐름에 부합하는 투자도 필요 ”

이와 같은 측면에서 AI, D&A가 기존에 활용되지 않던 영역에서 새로운 사업 모델과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사례가 주목된다. 축구에 AI 분석을 도입해 축구 구단을 대상으로 한 B2B 스포츠 AI 분석 서비스라는 새로운 영역을 창출한 비프로컴퍼니와 패션에 AI를 접목한 오드컨셉과 같은 스타트업을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스포츠, 법률, 회계, 세무와 같은 전문 서비스 영역에서의 AI, D&A 기술 도입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도 향후 유망한 분야로 전망된다. 특히 전문 서비스 영역은 해당 사업에 대한 깊이 있는 경험과 노하우가 기술과 함께 결합되어야 하기 때문에, 경쟁자가 쉽게 진입하기 어렵고 시장을 선점한 업체가 지배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분야라는 점에서 기존과는 다른 접근법과 공략이 필요하다.

④ 전 세계적 추세와 국내 정책 흐름을 쫓는 전략

코로나19로 전 세계적으로 국가 재정 투입을 크게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각 정부는 새로 투자되는 자본을 AI, 데이터, 모빌리티, 전기차, 그린에너지와 같이 미래를 선도하는 산업 분야로 견인하는 추세다. 국내에서 디지털 뉴딜/그린 뉴딜 정책 추진으로 관련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에 나서는 것도 동일한 맥락에서 볼 수 있다. 국내 벤처, 스타트업 투자에서 정책 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향후 국내 투자의 방향성 역시 정부 정책이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디지털, 그린 관련 사업 분야와 스타트업에 대한 지속적 관찰과 전략적 접근은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되었다. 한편, 국내와 글로벌 스타트업 투자에서도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간극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인사이트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투자 전략]

<p>전략 1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투자 주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커머스의 확대는 가속화, 유통 인프라 확장 활발 (ex. 네이버 풀필먼트 투자) • 중국의 다양한 에듀테크 서비스, 교육열이 높은 중국의 선례에 주목 • 식당/소매점의 무인주문, 자율주행 서비스 로봇처럼 비대면 고객 응대 기술도 부상 • 게임·미디어·콘텐츠 분야에서 코로나19 수혜 기대 	<p>전략 2 투자를 포스트 코로나 신성장동력 확보 기회로 활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기치 않은 코로나19 사태로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위축 • 경기 위축과 기업 수익성 악화로 사업 전망이 유망한 양질의 매물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음 •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의 적극적 투자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기 신성장동력 확보의 기회로 활용 가능
<p>전략 3 AI, D&A 기반 스타트업 부상에 주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D&A는 이제 광범위한 업종에서 필수 범용 기술로 활용되는 추세 • 다양한 분야와의 융합에 주목, 의료 AI, 음성 AI, 데이터 가공 스타트업 투자 활발 • 스포츠, 법률, 회계, 세무와 같은 전문 서비스 영역에까지 AI, D&A가 활용되는 추세 	<p>전략 4 전 세계적 추세와 국내 정책 흐름을 쫓는 전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세계적으로 VC 자본 투자가 AI, 데이터, 모빌리티, 전기차, 그린에너지 산업으로 몰리고 있는 추세 • 국내에서도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정책 추진에 나서면서 관련 분야 투자 급증할 전망,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 국내와 글로벌 스타트업 투자의 간극 속에서 인사이트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Business Contacts

Startup Innovation Center

김이동

전무

T: 02.2112.0343

E: yidongkim@kr.kpmg.com

박상원

이사

T: 02.2112.7711

E: sangwonpark@kr.kpmg.com

정도영

이사

T: 02.2112.0184

E: doyoungchung@kr.kpmg.com

kpmg.com/kr

© 2020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The KPMG name and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KPMG International.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u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